

연구총서 01-13

•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서 재 진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연구가 주체사상에 대하여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이 연구는 황장엽이 1972년 새롭게 만든 주체사상은 그 이전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김일성판 주체사상이 반사대주의 또는 self-reliance의 개념에 가깝다면, 황장엽이 만든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명제로서 subjecthood, lord의 개념에 가까운 개념이다.

둘째, 이 연구는 1998년 김정일의 공식취임이후 북한이 새롭게 제시한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한다. 신년공동사설이나 로동신문에서 주체사상의 자리를 강성대국론이 대체하고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셋째, 이 연구는 북한주민들이 식량난 속에서 개인주의적 행위의 이론적 도구로 주체사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체제를 이탈하는 체제저항의 이론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한다. 북한주민들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의 기본명제를 민주주의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주체사상이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I. 서론

주체사상을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문제의식에서 새롭게 연구해야

하는 세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장엽 전노동당 비서 겸 주체사상연구소장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귀순함으로써 황장엽 자신의 글이나 증언 등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주체사상의 내용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난에 기인한 체제위기 속에서 주체사상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가 하부구조, 이념이 상부구조를 구성하며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맑스주의의 명제를 따른다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온전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김정일이 국정의 최고수반으로 취임한 1998년 9월을 기하여 주체사상이 퇴조하고 대신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서 주체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이 글이 주체사상 연구에 새롭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제시된 세가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의 형성 및 변화의 배경과 그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주체사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한계

지배이데올로기는 만능적인 지배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피지배계급에 수용되어 공유되어야 이데올로기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피지배계급은 타율적으로 전달된 이념(received ideas)인 지배이데올로기 외에도 그들 자신의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경험적 이념(practical ideas)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

베이데올로기는 피지배계급과의 사이에 투쟁의 대상이 된다.

지배자의 의도와 피지배자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고 괴리되면 그 효율성이 상실되어 폐기되고 만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북한이 붙인 수식어대로 ‘영생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의 도구이다.

III. 50~60년대 반사대주의 개념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주체사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주체라는 개념의 핵심내용은 반사대주의 또는 자주노선이다. 소련이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숭배 배격과 수정주의와 같은 변화를 북한에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대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단계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되, 큰 나라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대주의를 반대한다는 대외적 자주성을 근간으로 하는 개념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반사대주의로서의 주체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김일성정권에 대한 도전이 대내외적으로 동시에 제기되었던 때이다. 대외적으로는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에 스탈린 격하운동과 함께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어 수정주의의 물결이 거센 파고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는 6.25전쟁의 실패의 책임, 개인숭배, 경제발전전략 등을 둘러싸고 김일성에 대한 정적들의 도전이 비등하던 시기였다.

주체사상이 발전의 탄력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김정일의 등장과 자신의 권력승계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것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통치이념과 권력간의 상관관계를 잘 알 수 있었다.

IV. 70년대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황장엽의 역할

김일성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주체사상은 황장엽의 인간중심론의 철학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철학적 원리로 대체되었다. 황장엽의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새롭게 구성된 것이다.

첫단계의 주체사상이 기본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이념적 전제로 한 사상이라면 황장엽의 인간중심적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상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개념들이 주체라는 하나의 글자로 담겨져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첫단계의 주체의 개념은 반사대주의 또는 자주가 핵심적 내용이며, 영어로는 self-reliance로 번역할 수 있는 개념이며, 둘째 단계의 주체의 개념은 주인 또는 주도자의 뜻으로서 영어로는 subjecthood, lord, initiator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개념이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이 이전의 맑스-레닌주의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는 맑스주의의 유물론을 뒤집어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맑스의 유물론이 토대가 상부구조와 사람의 의식을 규정한다는 명제로 정의될 수 있다면, 주체사상은 사람이 물질과 세계의 주인으로서 능동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체사상이 물질이 의식을 결정한다는 기왕의 교리를 버리고 정신이나 의식의 능동성을 내세우는 관념론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황장엽은 주체사상이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고 추진하여 나가는 주체를 계급이 아닌 인민대중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맑스-레닌주의와 가장 크게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V. 70~80년대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김정일의 역할

주체사상 발전의 셋째 단계는 주체사상의 개발이 황장엽의 손을 떠나서 김정일의 주도로 넘어가면서 수령절대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전개된 단계이다. 이 단계의 주체사상은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강화하고 대를 이은 충성을 유도하는 정치적 배경의 영향을 받았다.

이 단계는 김정일이 권력의 실세로 전면에 부상한 것과 관련이 있다. 선전선동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활용하여 기존의 북한 역사와 정책을 주체사상의 논리로 일색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김일성의 61세 생일을 맞는 1973년 4월호 「근로자」에 실린 주체사상에 대한 특집기사이다. 「근로자」 4월호에 실린 8편의 논문 모두가 주체사상 관련 논문이다. 주체사상이 당시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 실린 논문은 모두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최초로 담은 1972년 9월의 논문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기존의 역사와 정책을 인민대중 중심의 주체사상으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김정일은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으로 바꾸기 위하여 첫째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사회유기체의 개념으로 바꾸었다. 수령-당-대중이라는 사회주체 중에서 수령이 뇌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둘째는 ‘혁명의 주체’의 개념을 변경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오랫동안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결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이전의 명제를 변경하고 대신에 역사의 주체로서 수령의 역할을 도입하였다.

김정일이 주체사상 개발의 주도권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주체사상을 인간중심의 개념에서 수령중심으로 바꾼 이유가 자신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VI. 80~90년대 우리식 사회주의 구호하의 주체사상

중국의 개혁개방,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사회주의권이 변혁의 격랑에 휩싸이게 되자 북한 지도부는 50년대처럼 수정주의와 사대주의를 경계하고 문호를 굳게 닫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인식은 곧 지도부의 담화에 반영되었으며 주체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나온 주체사상은 이전에 나온 세가지 주체사상이 모두 혼합되고 조합된 형태로 나왔다. 이전에 나온 주체사상 발전의 세단계의 각 핵심 개념이었던 반사대주의, 인간중심론, 수령중심론이 모두 조합되는 형태로 나왔으나 그 기조는 반사대주의와 민족주의의 색깔을 짙게 띠었다. 반사대주의 개념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로 발전되었고,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은 모두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의 틀 내에서 변용된 개념들이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강성대국론은 새로운 통치이념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VII. 2000년대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통치이념의 세대교체

1. 주체사상 퇴조의 배경

김일성 사후 북한은 통치이념을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강성대국은 이제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설득력을 훼손시키는 대내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김일성이 사망하고 본격 김정일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정치구호를 모색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등이 모두 김일성 사후에 나온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체사상 대신 새로운 정치구호가 요구된 것은 식량난이라는 큰 위기적 상황 때문이다. 북한이 1995년부터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한 이후 반사대주의 개념의 주체사상이 대외적으로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셋째, 대내적으로도 주체사상은 기능부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90년대 중반의 북한은 정권수립이후 최대의 위기적 상황에 직면했다.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대기근의 시대에서 이전 시대의 이념으로 사회통합을 감당하기에는 미흡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황장엽이 남한으로 귀순한 것도 주체사상이 퇴조하게 된 배경의 하나이다.

2. '강성대국'론의 등장

1998년 가을에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놓았다. 강성대국론이 당시의 내용과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정치에서 행한 역할로 볼 때 강성대국론은 공식적인 김정일 시대의 공식 지도이념으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강성대국론은 김정일이 국정의 최고지도자로 취임하면서 제시한 국정목표이자, 미래의 vision이며, 통치이념으로서 특징지어지는 이념체계이다.

북한이 강성대국론을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이유를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주체사상은 새로운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는 참신성이 부족하며, 또한 사회통합과 사회동원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량난이 심화되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궁색하게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을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으로 변형하기는 했지만 실제 효용가치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둘째, 고난의 행군 시기에 희망과 비전을 주는 새로운 통치이념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간부들과 주민들의 체제불안 심리와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 강한 국가로 발전될 것이며 김정일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성취시켜 줄 것이라는 이미지로서 제시된 것이 강성대국이다.

셋째, 북한은 식량난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체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상통제와 선군정치의 지속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상강국, 군사강국,

정치강국이라는 구호를 하위구호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강성대국론의 기능

강성대국 구호는 식량난으로 인하여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부강한 이상향으로서의 이미지 창출에 많이 동원되고 있으며, 강성대국 건설을 향하여 지도하고 있는 김정일의 이미지 만들기에도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정보산업에 접목시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감을 조장하는데 기치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2001년을 기하여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정보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4. 강성대국론과 김정일 개인숭배 내용의 변화

정보산업 육성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 이것이 북한의 마스터플랜이며 이 마스터플랜을 창시해낸 사람이 김정일이라는 논리로 강성대국과 정보산업을 김정일의 개인숭배에 활용하고 있다.

김정일의 이미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신해 왔는데 60~70년대에 권력승계를 준비할 때 문화예술 분야의 천재로, 70~80년대에 공식적 후계자로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는 주체사상의 계승·발전자로, 90년대 중반의 체제 위기시에는 선군사상을 주도하는 ‘장군님’으로 선전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에 대한 김정일 책임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대책은 김정일이 북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김정일이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고 있으며 북한은 조만간에 ‘단번도약’을 이룩하여 경제난을 해결하여 강성대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난의 시대에 경제문제의 지도자로 이미지화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VIII.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주체사상의 기능 변화

1. 주체사상의 개념에 포함된 개인주의 이론의 요소

북한주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주체사상은 인간중심의 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이처럼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은 보편적인 인본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2. 자력갱생 개념의 변화와 개인주의 생활양식으로의 변화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아사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며 오히려 이기주의가 발호하는 체험을 한 뒤부터 북한 주민들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명제는 북한당국이 경제난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정책과 맞물려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3. 주체사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주체사상의 역기능의 추세

주체사상이 주민들의 공감을 상실하게 된 것은 다음의 몇가지 이유에서라고 한다. 첫째, 북한지도부는 주체사상을 통하여 주민들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성을 높여서 정치와 경제에 동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했지만, 주민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말을 민주주의적 개념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당국의 의도와 주민들의 인식은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둘째, 주체사상은 이제 북한주민들의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체사상의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를 인식한 북한주민들은 이제 개인차원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현실에서 개인주의적 이론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은 이제 체제로부터의 이탈의 이론적 근거로까지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호송되는 도중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한 탈북자는 주체사상이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4. 주체사상의 개념에 포함된 혁명이론적 요소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주체사상이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경향을 본다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명제는 향후 북한체제의 사회통제 능력에 따라서 혁명의 이론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주체사상 학습참고자료』는 주체사상이 위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가장 숭고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주체사상은 인민대중

을 착취와 압박에서만이 아니라 힘든 노동과 낡은 사상과 문화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혁명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내세운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주체사상이 이전 체제의 잔재를 낡은 체제라고 규정했지만,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기존의 체제를 낡은 잔재로 규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5. 주체사상이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사례: 남한의 주사파 학생운동

주체사상이 남한에서 학생운동의 이론으로 수용되어 변혁이론으로 활용된 적이 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이 북한을 반대하는 쪽으로 태도변화를 하게 된 배경은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이론과 북한의 실제 현실간의 차이를 확인한데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양상이다. 주체사상의 이론은 이골이 나게 교육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남한대학생이 북한에서 느끼는 것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북한에서 사는 주민들도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느끼고 있으며 점차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 지배이데올로기가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사례: 동독 붕괴 당시의 시민운동

동독에서도 맑스-레닌주의의 원리에 따라 인민의 개념이 중시되었다. 동독에서 사용된 중요한 정치구호의 하나는 ‘인민이 주인이다’, ‘모든 것은 국민복지를 위해서!’ 등이다. 동독의 시민들이 1989년 체

제에 저항하여 쫓겨났을 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 “우리가 인민이다, 또는 We Are the People”이다. 이 외침의 의미는 “인민이 주인이라고 당국이 주장했듯이 우리가 인민이니 우리가 주인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주인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주인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혁명적 구호가 된 것이다.

지배자들이 허위의식으로 사용하던 지배이데올로기는 피지배자들이 그 이념을 현실로 실현하자고 요구했을 때는 그 자체가 혁명적 구호로 되는 것이다.

IX. 맺음말

이 연구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의 하나는 북한 당국이 주체사상을 언급할 때는 북한 주민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갖도록 사상교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수령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지만, 주민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말을 민주주의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당국의 의도와 주민들이 인식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결국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만병통치약식으로 어디에서나 활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효과는 내기가 어려운 개념으로 되고 말았다. 북한은 수령우상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지만 주체사상이라는 개념으로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에서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의 개념으로 궁색하게 변형하여 논리적 연결고리를 만들기는 하였지만 인간이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주제와 수령이 주체라는 억지논리 사이는 여전히

갈등과 모순적 관계에 있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최대의 모순이자 한계였다.

결국 주체사상은 지도부에서 의도하는 방향에서 이탈하여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체사상이 역기능을 내고 있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현실과 사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인민대중이나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둘째, 경제난속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 개개인에게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자기생계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도록 한 방침이 주체사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서 북한이 1995년부터 공식적으로 해외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사상이 존재이유를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결국 북한은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취임하는 1998년 9월을 기하여 새로운 통치이념인 강성대국론을 등장시켰기 때문이다. 북한 정치에서 이제 강성대국론이 그 활용도에 있어서 주체사상을 능가하면서 주체사상을 대체하고 있다.

흔히들 주체사상을 북한체제와 동일시할 정도로 주체사상을 북한체제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하곤 했었는데, 이제 주체사상은 강성대국론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다. 주체사상은 영생불멸할 것이라는 북한의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자가 주체사상을 먼저 감가상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강성대국론이 대를 잇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체사상은 새로운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는 참신

성이 부족하며, 또한 사회통합과 사회동원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체제위기에 김정일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체사상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구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은 이미 너무 오래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일상화되어 약효가 소진되었다고 본 듯하다.

셋째,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정보산업론과 결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김정일을 정보산업의 선구자로 부각하여 김정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만들기에 활용하고 있다.

넷째, 강성대국론이 처음으로 나온 시점이 1998년으로서 황장엽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이듬해라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있던 소련으로부터 사상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차별화할 수 있는 통치이념으로 수용되었던 주체사상이 이제 그 운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주체사상의 역할은 오히려 북한주민들에 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은 최근에 주민들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으며 북한지도부의 의도와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목 차 -

I. 서론	1
II.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한계	5
1.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	5
2. 지배이데올로기의 한계	8
III. 50~60년대 반사대주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12
1. '주체 확립' 개념의 형성 배경	13
2. 자주노선의 '사상'으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	27
3. 항일무장투쟁 중심의 주체사상의 콘텐츠 형성	35
4. 1967년 갑산과 숙청이후 유일사상으로의 발전	37
5. 주체사상의 기본노선 정립과 초기 주체사상의 특징	42
IV. 70년대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황장엽의 역할	46
1. 황장엽의 인간중심론 주체사상 개발의 계기	47
2. 인간중심론 주체사상의 내용	49
3. 황장엽의 인간중심론 주체사상의 출처	53
4. 인간중심론 주체사상 개발에서의 황장엽의 역할	58
5. 새로운 주체사상의 1972년 헌법에의 명기	63

V. 70~80년대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66
1. 김정일 주도의 주체사상 개발	66
2.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	69
3. 수령중심론으로의 주체사상 변형	74
4. 1982년의 체계화된 주체사상과 주체사상 총서의 내용	83
5. 김정일 후계자 체제에서 주체사상의 기능	85
VI. 80~90년대 ‘우리식 사회주의’ 구호하의 주체사상	92
1. 반사대주의의 측면	93
2. 인간중심론의 측면	101
3. 수령중심론의 측면	103
VII. 2000년대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통치이념의 세대교체	109
1. 주체사상 퇴조의 배경	109
2. ‘붉은기 사상’의 등장	110
3. 강성대국론의 등장	111
4. 강성대국론의 기능	115
5. 강성대국론과 김정일 개인숭배 내용의 변화	118
VIII.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의 기능변화	122
1. 주체사상의 개념에 포함된 개인주의 이론의 요소	122
2. 자력갱생과 개인주의 생활양식으로의 변화	124
3. 주체사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주체사상의 역기능	125
4. 주체사상의 개념에 포함된 혁명이론적 요소	130

5. 주체사상이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사례: 남한의 주사파 학생운동	131
6. 지배이데올로기가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사례: 동독 붕괴 당시의 시민운동	133
IX. 맺음말	135
참고문헌	141

I. 서론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 주체사상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덕분에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매우 심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주체사상을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문제의식에서 새롭게 연구해야 할 몇가지 중요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였다.

첫째, 황장엽 전노동당 비서 겸 주체사상연구소장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귀순함으로써 황장엽 자신의 글이나 증언¹⁾ 등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주체사상의 내용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는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에서 김일성, 김정일, 황장엽의 역할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주체사상은 때로는 대외적 자주성 또는 반사대주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인본주의적 사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수령절대주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매우 많은 개념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사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정도이다.

1) 황장엽이 탈북 이후 집필한 책은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북한의 진실과 허위」(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인간중심철학의 몇가지 문제」(서울: 시대정신, 2000); 「인생관: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 I」(서울: 시대정신, 2001); 「사회역사관: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 II」(서울: 시대정신, 2001); 「세계관: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 III」(서울: 시대정신, 2001) 등이다.

2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황장엽 증언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내용의 하나는 김일성에 의하여 주도된 초기의 주체사상의 내용과 황장엽의 주도로 만들어진 주체사상, 김정일의 주도로 만들어진 주체사상의 내용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는 주체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연구들은 1967년을 기점으로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과 김정일에 의하여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으로 변형되었다는 정도로 주체사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주체사상의 변화가 북한권력의 동태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황장엽의 증언은 이런 부분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경제난에 기인한 체제위기 속에서 주체사상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가 하부구조, 이념이 상부구조를 구성하며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맑스주의의 명제를 따른다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온전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경제난과 더불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신화가 깨졌다. 북한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는 인민 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²⁾라고 주장했으며 우월성의 한 증거는 경제적 복지에 있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권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행한 연설에서도 김정일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해설서³⁾에서도

2) 김정일,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선집 11』,

“사람이 살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부를 생산하고 향유해야 하며 그해야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며 활동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들도 빨리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곧 북한식 사회주의 그 자체를 정당화해 주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본다면 경제난이 지속되는 북한에서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의 논리는 북한 주민들에 의하여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셋째, 김정일이 국정의 최고수반으로 취임한 1998년 9월을 기하여 주체사상이 퇴조하고 대신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서 주체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주체사상이 폐기처분된 것은 아니지만 김정일시대라는 새로운 정치적 배경, 식량난이라는 정권창립 이래의 최대의 정권위기에서 새로운 통치이념으로서 강성대국론이 생성되어 주체사상을 거의 대체하고 있다. 흔히들 주체사상을 북한 체제 그 자체와 동일시하기도 할 만큼 주체사상은 북한체제에서 중요한 요소였으며, 북한체제유지의 최대의 버팀목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으며,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로 주체사상이 거명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지도부에서 주체사상을 퇴출시키고 있을 만큼 주체사상의 역할에 큰 변화가 발생한 만큼 주체사상의 향후의 운명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이 주체사상 연구에 새롭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제시된 세가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의 형성 및 변화의 배경과 그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주체사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조선로동당출판사, 『사람중심의 사회주의』(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82.

4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무엇보다도 이 글은 주체사상에 대한 지도부의 의도와 일반인의 인식이 일치되지 못하고 괴리되고 있는 측면을 부각한다.

또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을 개인주의적 일탈이나 체제이탈을 위한 이론적 정당성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을 중시하여 이 경향이 향후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이 저항이데올로기로서 둔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체사상이 퇴조하고 강성대국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의 주체사상의 거취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황장엽의 탈북 이후의 증언과 그동안 그에 의하여 발간된 연구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처음부터 새롭게 분석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문제의식을 풀어내는 것과 동시에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대한 새로운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 글은 주체사상이 1950년대 김일성에 의하여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황장엽에 의하여 새롭게 개작된 과정, 김정일에 의하여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변형된 과정,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의 외중에서 주체사상이 새로운 개념들로 변용된 과정, 그리고 2000년대 강성대국론이 등장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차는 주체사상의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체사상의 기능변화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덧붙였다.

II.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한계

1.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

주체사상과 같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는 자칫 지배이데올로기의 주장 그 자체에 구속되어서 이데올로기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을 간과하기 쉽다.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는 주체사상이 스스로 주장하는 이론적 체계나 지향하는 목표로서가 아니라 주체사상이 북한의 어떠한 대내외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사회정치적 기능을 하느냐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모든 영역을 지도하는 이념적 체계, 가치체계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롯한 일부 지도부에 의하여 발전되어 인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된 지배 이데올로기이다. 인민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분명히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한 가치 및 세계관과 상충될 수 있다.

지배자의 의도와 피지배자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고 괴리되면 그 효율성이 상실되어 폐기되고 만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북한이 붙인 수식어대로 ‘영생불멸의’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정치의 도구이다.

이 논문은 주체사상을 지배이데올로기 이론으로 조명하고 지배이데올로기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방법이란 지배자가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게 된 동기와 그것을 어떠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개념을 최초로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정립한 맑스는 다음의 두 가지 명제를 발전시켰다. 첫째,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는 명제이며, 둘째는 모든 시대에 있어서 지배계급의 이념이 지배이념으로 된다는 명제이다.⁴⁾ 전자의 명제는 모든 사회계급은 상이한 사회적 존재조건 하에 있으므로 상이한 사회적 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피지배계급도 고유의 사회의식과 가치를 가지게 되어 지배계급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명제는 지배계급이 그들의 이념체계를 피지배계급에 강요하여 지배이데올로기가 되도록 한다는 관점이다. 지배이데올로기는 원래 지배자의 무기로서 피지배계급의 이익에 관련되는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맑스는 이데올로기를 본질적으로 ‘허위의식’이라고 보았다.⁵⁾ 맑스에 있어서 왜곡된 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에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모순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며, 그 은폐는 지배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⁶⁾ 지배이데올로기는 특정 지배자나 특정 사회세력의 이익을 전체 사회 또는 민족의 보편적 이익이라고 분석하고 위장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항상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 등의 보편성(universality)을 표방한다.⁷⁾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은 이데올로기가 보편성의 이름으로

4) Marx and Engels, *The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8), p. 47, p. 64.

5) Nicholas Abercrombie and Bryan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in Anthony Giddens and David Held, eds., *Classes, Power and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 398.

6) Jorge Larrain, *The Concept of Ideology* (Athens: University of George Press, 1979), p. 48.

7) Kai Nielsen, “Marxism, Ideology, and Moral Philosophy,”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 6, no. 1 (1980), pp. 58~59; Koula Mellos, “Developments in Advanced Capitalist Ideology,”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1, no. 4 (1978) 참조.

표면적으로 주장되는 현상적 내용(appearance)과 특정 지배자의 실제이익에 관련된 본질적 내용(essence)을 구분해내는 작업을 요구한다.⁸⁾ 이렇게 할 때 지배이데올로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양면성을 판별해내기 위하여 국가(state)와 정권(regime)의 개념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가 표면으로 내세우는 현상적 내용은 항상 국가전체의 이익, 또는 민족전체의 이익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민족이익 지향적이다. 그러나 국가관리자로서의 정권의 가장 중요한 이익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일 경우가 많다.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일수록 정권의 편협한 자기이익을 위하는 경우가 많다.

밀리반드에 의하면 국가관리자는 두 가지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하나는 권력담당자들의 자기이익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이익 또는 민족이익이라고 보았다. 밀리반드는 모든 정치인과 권력 담당자들이 오로지 자기이익을 위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만, 그들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행위가 자기이익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고 보았다.⁹⁾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국민적 합의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이념체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의한 이념이 곧 보편적인 이념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항상 특정 지배인이나 특정 사회세력의 이념체계가 보편적 이념으로 주장되고 강제적으로 전 사회에 주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결국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만다. 이데올로기에 허위의식의 요소

8) Ibid., p. 55.

9) Ralph Miliband, *Class Power and State Power* (New York: Verso, 1983), p. 69.

가 많을수록 그 이데올로기의 정당성과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수명은 다하고 만다.

2. 지배이데올로기의 한계

지배이데올로기는 만능적 지배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피지배계급에 수용되어 공유되어야 이데올로기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피지배계급은 타율적으로 전달된 이념(received ideas)인 지배이데올로기 외에도 그들 자신의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경험적 이념(practical ideas)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배이데올로기는 피지배계급과의 사이에 투쟁의 대상이 된다.

이념의 담지자는 바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념은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라는 통치 이념도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의 도구이며 지배자의 도구로 이용되는 한 피지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더 잘살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사회주의 이념은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피지배자의 동의는 주로 경제적 보상으로 결정된다.

결국 이념은 경제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된 배경도 실체는 선진 자본주의를 추격 발전하기 위한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선택된 것이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경제 체제로 선택된 것이다. 자본주의와의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실패한 제3세계 러시아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을 방지하고 자본주의

10) David Cheal, "Hegemony, Ideology and Contradictory Consciousness,"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20 (1979), P. 109.

를 추격 발전할 수 있는 발전전략으로 채택된 것이다.¹¹⁾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자본주의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인민들에게 공언하였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함으로써 합리적 행위의 기준을 사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수준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으로 격상하며, 또한 노동자는 자본의 착취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더욱 열광적으로 일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사회주의의 이념적 주장은 현실로 실현하는데 실패하였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의 동의는 이데올로기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에게 이로운가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이 다른 이들의 상황에 비해서 어떠한가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의 동의도 무너진다. 이데올로기는 매우 환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질적 보상이 주어 져야 정당성을 갖는다. 아베크롬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피지배계급을 복종하게 하는 요인이 피지배자의 복종에 대하여 지배자가 제공하는 물질적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복종과 그에 대한 보상은 이데올로기 조작만으로는 미약하다.¹⁴⁾

11) Imman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12)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50.

13) 에릭 홉스봄, 「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 (까치, 1994), p. 679.

14) Nicholas Abercrombie, Stephen Hill, and Bryan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0), p. 3.

사회주의 체제 이념이 경제에의 의존성이 강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대중의 합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 전위대의 주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사회주의가 소수 정예주의라는 것은 결국 대중적 지지도가 낮다는 뜻이다. 대중적 지지도가 낮은 사회주의 이념은 전위당 또는 공산당에 의하여 대중에게 강요된 셈이다. 실제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러시아의 농업집단화는 농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았으며 농민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농민 문화를 분쇄하는 등 농민과 정권간의 내전에 가까운 투쟁을 통해서만 토지의 사회주의화가 가능했다.¹⁶⁾ 농업사회였던 러시아에서 농업집단화가 소련 사회주의 이념의 제도적 실현이라고 본다면 사회주의 이념은 농민들에게서 완전히 거부당한 셈이다. 농업집단화가 진행된 1928년과 1930년 사이 소련에서 농민들에 의하여 행해진 테러사건이 2만4천여 건에 달했다.¹⁷⁾ 사회주의에 대한 농민들의 완강한 저항을 드러낸 사건이다.

북한에서 1958년에 행해진 농업집단화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저항을 받았다. 저항의 방법과 강도에 있어서는 소련과는 차이가 있지만 북한 농민들의 경우도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농업집단화에 완강히 저항했다.¹⁸⁾

15) Ralf Miliband, *Class Power and State Power* (New York: Verso, 1983), pp. 161~62;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386~396.

16) Lynne Viola, *Peasant Rebels under Stalin: Collectivization and the Culture of Peasant Resist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3.

17) *Ibid.*, p. 103.

18) 자세한 내용은 서재진,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통일연구원, 1996) 참조.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념은 한때 대중적 동의를 얻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일성 시대 초기 토지개혁이나 6.25전쟁 이후 급속한 전후복구 등 경제적 발전이 사회주의 이념에 어느정도 정당성을 부여했던 측면도 있었다.

이념은 경제의 건강성 여부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법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Ⅲ. 50~60년대 반사대주의 개념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주체사상의 형성 발전은 네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주체사상의 내용도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1950년대 김일성 정권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 극복하기 위하여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개념으로서의 주체라는 개념이 사용되던 단계, 둘째, 황장엽이 인간중심의 사상을 도입하여 이전의 주체의 개념을 전면 개작한 단계, 셋째, 인간중심주의 주체사상이 수령절대주의의 사상으로 변질되는 단계, 넷째, 사회주의권 붕괴의 와중에서 정권위기에 직면하자 앞의 세단계의 개념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던 단계이다. 끝으로 1998년에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구호가 제시되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단계이다.

이들 다섯 단계를 각 장으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살펴본다.

<표 1> 주체사상의 발전단계별 주도자, 상황 및 핵심내용

단계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새단계)
주도자	김일성	황장엽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상 황	사회주의권 격변과 권력투쟁기	정권안정기	권력세습 준비기	사회주의권 격변과 정권 위기	식량난
핵 심 내 용	반사대주의 주체사상	인간중심론 주체사상	수령중심론 주체사상	우리식사회주의 : 반사대주의/인간중심론/수령론주체사상	* 강성대국

* 강성대국론은 주체사상 이후의 새로운 통치이념이다.

1. '주체 확립' 개념의 형성 배경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주체사상이 왜 생겼는지,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체사상이 언제 처음으로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매우 타당한 증거가 북한의 노동당 이론지 『근로자』에서 발견된다. 아래 인용문은 ‘주체’라는 말이 처음으로 전면적 체계적으로 사용된 때가 1955년 12월¹⁹⁾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1955년 12월 당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한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 동지는 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말씀하였다. 그러나 그 기초에는 바로 조선혁명 수행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근본사상이 놓여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바로 이 연설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체계적으로 진술되었다.²⁰⁾

김일성이 1955년 12월의 연설에서 소련파, 연안파, 남로당파 등 자기의 정적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는데 이들을 주체가 없는 사람들, 사대주의자들, 종파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일성은 1955년 4월 전원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소련파, 연안파, 남로당파를 거명하며 그들이 종파주의를 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지만 주체라는 개념이나 주체확립이라는 말은 사

19)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0) 신진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 『근로자』, 1965년 10월호, p. 18.

용하지 않았고 주체라는 의미를 ‘자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당학습에서 자체의 것을 많이 배우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무들은 자체의 것을 잘 배우려 하지 않으며 마치 자체의 것은 맑스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것이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산 맑스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²¹⁾

김일성이 1955년 12월에 들어서 ‘주체’라는 말을 생각해내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1955년 여름에 있었던 유고 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행한 ‘자주노선’ 선언이다. 2차대전 당시 나찌에 저항한 가장 유명한 공산당 지도자 티토와 화해하기 위하여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유고를 방문했을 때 티토는 화해의 전제조건으로 “다른 나라나 다른 당에 의한 내정간섭을 완전히 배제하며 모든 나라들이 외부의 압력없이 자유의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후르시초프가 이를 수용하여 공동코뮤니케로 발표하였다.²²⁾ 혹시 김일성이 티토에게서 자주노선 또는 주체노선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해 12월부터 ‘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생성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1955년을 전후한 북한의 내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탈린 사후 후르시초프의 개인숭배 비판의 영향

21) 김일성, “사회주의혁명의 현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5년 4월 4일), 『김일성저작집 9』.

22) Nikita Khrushchev, *Khrushchev Remembers*, with an Introduction, Commentary and Notes by Edward Crankshaw, translated and Edited by Strobe Talbott, (Boston: Lottle Brown, 1970), p. 382.

김일성이 1955년에 ‘주체’ 또는 ‘주체의 확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 후 그 후임자 후르시초프가 취한 정책성향과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주체사상 형성에 후르시초프가 어떻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탈린 사망후의 후르시초프의 인식과 그 정책들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에 의한 엄청난 학살과 만행이 스탈린의 개인 독재와 개인숭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척결하는 작업으로서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스탈린이 사망하자마자 후르시초프를 비롯한 소련 고위층은 스탈린의 사망과 더불어 스탈린 체제의 학정이 종결되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스탈린의 학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면서 스탈린시대를 청산하기로 결정하였다. 후르시초프의 회고록에 의하면 스탈린 학정의 참상이 엄청났기 때문에 과거 정권의 비행의 실상을 앞장서서 밝히고 비판하지 않으면 유배갔던 사람들이 출옥할 경우 현재의 자신들을 같은 무리로 취급하여 저항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서둘러서 스탈린 시대를 비판하고 과거청산을 하였다고 한다.²³⁾ 또한 권력 남용의 엄청난 해악과 잔혹한 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거청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²⁴⁾

후르시초프를 중심으로 한 정치국원들은 그 1차적인 조치로 스탈린 학정의 하수인이었던 베리아를 체포하여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그를 체포하였다.

23) Ibid., p. 349.

24) Ibid., p. 564.

후르시초프 비밀 연설은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맑스와 레닌의 이론에 근거하여 집중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스탈린체제 하에서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유배된 사례들의 진상을 자세히 밝혔다.

후르시초프의 비밀연설은 개인독재는 필연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고 보고 개인독재와 개인숭배를 비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²⁵⁾ 깨알같은 글씨로 58페이지에 달하는 연설문으로서 1954년 맑스-엥겔스-레닌-스탈린연구소장을 지낸 Pospelov가 이끄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 조서를 연설문으로 개조하여 후르시초프가 읽은 것이다. 이 비밀연설에 스탈린의 죄행이 소상이 밝혀져 있다.

스탈린 통치기간 동안 약 2천만(전체인구의 8분의 1)의 소련인이 총살당하거나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혔으며 수십만 명의 폴란드인, 루마니아인, 발트해 국민들이 소련에서 처형되거나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혔다.²⁶⁾ 1934년 17차당대회에서 선출된 139명의 중앙위원 중에서 114명이²⁷⁾ 처형되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갔다. 최고소비에트 회의 집행위원들과 국가계획위원회 위원들도 참화를 당했다. 고르키市の 당위원 전원이 1937~1938년 사이에 수감되었으며, 1937년에 열린 고르키 시당대회 대표단 644명 중에서 66%인 425명이 체포되어 유배되거나 처형되었다. 1934년에 열렸던 제1차 소련 문인대회에 참가했던 수백명의 작가 중에서 1954년 2차대회까지 살아남서 참가할 수 있었던 사람이 50%뿐이었으며 그들의 90%도 억압을 당했다.²⁸⁾

25) Ibid., p. 573.

26) Janusz Bardach and Katheleen Gleeson, *Man is Wolf to Ma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ix.

27) 후르시초프의 회고록에는 중앙위원의 3분의 2라고 증언했음. Khrushchev, *Khrushchev Remembers*, p. 347.

28) Robert Thruston, *Life and Terror in Stalin's Russia*, 1934~1941,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죄를 조작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하여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죄의 증거는 자백밖에 없는 무수한 사람들을 ‘인민의 적’이라는 이름으로 처형하거나 유배를 보냈다고 한다.²⁹⁾

후르시초프의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 비판과 수정주의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후르시초프는 집권하자마자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스탈린을 흉내내어 개인숭배를 하고 있던 것을 비판하면서 정책변화와 지도자 교체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소련의 권고를 받아들여 헝가리에서는 1953년 6월 Rakosi를 Nagy로 교체하였고, 폴란드에서는 조금 늦게 1954년 3월 Bierut를 Cyrankiewicz로 교체하였다.³⁰⁾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의 바람은 중국에서도 어김없이 불었다. 1956년 9월 15일 중국에서는 8전대회(중국공산당 제8기 자국대표대회)에서 그 영향이 나타났다. 중국은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숭배를 후퇴시키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모택동의 권력을 삭감시키기 위하여 중앙서기처가 설치되었고 총서기에 등소평이 선임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모택동 사상은 우리 모두의 공작 지침이다”라고 되어 있던 黨章의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맑스레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6), p.68.

29) Nikita Khrushchev, *Khrushchev Remembers*, p. 344. 후르시초프와 측근의 정치국원들이 스탈린을 격하한 또 하나의 배경은 스탈린 사망 직후부터 베리아가 대권을 노리고 있었고, 베리아가 집권하게 되면 후르시초프 자신을 포함한 정치국원들이 다 처형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후르시초프의 회고록에서 엿보인다. 베리아를 체포하기 위한 명분이 스탈린 체제에 대한 비판과 그 대량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었다.

30) 伊東孝之, “동구혁명과 비스탈린화,” 동구사연구회 편, 좋은책 편집부 역, 『격동의 동구현대사』 (서울: 좋은책, 1990), p. 192.

닌주의의 학습에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의식을 높여간다”는 구절로 대체되었다.³¹⁾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개인숭배 비판과 개인숭배 퇴조의 흐름을 보고 김일성으로서는 매우 큰 압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북한의 경우 그 해 1956년 3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후르시초프 비밀연설의 번역·청취가 있었다고 한다. 4월에 있을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직전에 열린 이 회의에서는 당내에 약간의 개인숭배 현상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³²⁾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연설을 계기로 김일성 지도부는 그 동안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김일성에 대한 ‘수령’ 호칭은 물론 ‘경애하는’과 같은 수식어도 일체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소련의 눈치를 많이 보았다.

그러나 개인숭배 비판의 바람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 자신의 정적들을 고무시킬까봐 매우 우려하였다.

사회주의권의 반사회주의 민중봉기와 김일성의 대응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과 수정주의의 바람은 사회주의 전체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몇 달 후부터 수정주의적 징후가 나타났으며 수정주의적 압력은 전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로 확산되었다. 테러를 근절하고 경제적 생활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압력이 가해졌다.³³⁾ 또한 후르시초

31) 박찬식 편역, 『등소평』 (서울: 두레, 1979), p. 206.

32) “최창익, 윤공흠, 서휘, 리필규, 박창욱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에 대하여” (전원회의의 결정, 1956년 8월 30~31),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206에서 재인용.

33) Jerry F. Hough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프는 스탈린시대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폐기하고 ‘전인민의 국가’(all-people’s state)라는 민주주의적 국가의 새로운 체제를 지향했다.³⁴⁾ 스탈린 치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인민대중에 대한 독재적 지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스탈린은 사회주의체제와 동일시 되던 상황에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은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6년 20차 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하는 연설을 통해 인류의 진보적 지도자, 세계의 영감, 소비에트 인민의 아버지, 과학과 학문의 거장, 군사적 천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등 최고의 찬사로 숭배되었던 스탈린이 사실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고문광이요, 대량 살륙자이며, 소련을 재앙으로 몰고 간 군사적 무식쟁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또한 스탈린의 편집광적인 망상, 고문, 숙청에 관한 온갖 죄상을 낱알이 폭로하였던 것이다.³⁵⁾ 후르시초프의 이 연설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의 도덕적 황폐화에 대한 고발은 사회주의권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 영향은 즉각적으로 동구 사회주의권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다.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일찍부터 반소 민족주의 감정이 발달해 있었는데 후르시초프의 이 연설은 화약에 불을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폴란드에서는 1956년 6월 포즈난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의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를 하다가 폭동으로 발전하자 군대가 투입되어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53명, 부상자 300명, 체포자 323명에 달하는 이른바 포즈난 사건이 발생했다.

Govern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 206.

34) *Ibid.*, p. 226.

35)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50~51.

헝가리의 1956년 사건은 훨씬 대규모 사건으로 발전되었고 결국은 소련군대가 투입되어 진압되었다. 당원, 지식인, 학생, 공장노동자에 이르는 모든 사회집단과 계급들에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전국적 혁명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전국적 혁명적 운동은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지도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였다.³⁶⁾ 헝가리 사태는 노동자들의 반사회주의운동 또는 반소 민족주의운동이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개입했고 또 소련군의 개입없이는 진압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국적인 대규모적인 격렬한 시민봉기였다. 소련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1989년에 일어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바로 이 때 1956년에 일어났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내부 변화의 진실이 매우 왜곡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북한은 제국주의의 사주와 반혁명분자들에 의한 소행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미칠 영향을 매우 우려하였다.

제국주의 간섭자들과 헝가리 반혁명분자들에 의하여 도발된 헝가리에서의 반혁명적 폭동은 헝가리 노동혁명 정부의 요청에 의한 소련의 국제주의적 원조와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헝가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급속히 진압되었다.³⁷⁾

헝가리 인민은 국내 반혁명세력을 타도하고 자기들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빛나게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중심에 새 전쟁의 운상을 조성하려던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³⁸⁾

36) 伊東孝之, “동구혁명과 비스탈린화,” p. 197.; Howard Davis and Richard Scase,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울: 느티나무, 1990), p. 185.

37) 김일성, “체코공화국 정부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김일성 수상의 연설(1957년 4월 1일),” 『로동신문』, 1957. 4. 2.

38)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1957년 4월 4일),”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8』 (평양:

소련의 개인숭배 비판의 압력, 동구에서의 반소 민족주의 시민봉기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사건이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소련의 내정간섭과 동구에서의 반사회주의의 바람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폐쇄정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외부와의 단절과 폐쇄의 전략은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최근에도 주된 대응책으로 채택된 전략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당시 김일성의 한 연설은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잘 보여준다.

만일 우리당과 당원들이 사상적 단련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온갖 반맑스주의적 사상적 관점 경향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고 또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³⁹⁾

김일성에게는 개인숭배비판 운동과 수정주의가 북한에 침습되지 못하게 하여 정권을 수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외부사조 차단과 사상무장 강화가 모색되었다. 그것은 곧 차단과 단절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이 요구되는 외부적 조건이었다.

우리는 모든 당 내에서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수정주의자의 활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정주의자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을 고립시켜 수정주의가 대중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수정주의에 끌어들여지지 않도록 하며 공산주의자와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결속시켜 전 당이 맑스-레닌주의적 입장에 확고히 서도록 하며, 공산주의적 대오를 튼

조선중앙통신사, 1958), p. 74.

39) 김일성,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40주년 경축 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회에 참가한 우리당 및 정부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1957년 12월 5일),” 위의 책, p. 37.

튼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통하여 모든 당과 모든 공산주의자를 보다 단련시키고 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준비시킬 수 있다.⁴⁰⁾

국내 정적들의 도전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의 주체

‘주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국내정치적 배경은 김일성 반대파의 도전이다. 당시까지 국내파 또는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등 많은 파벌들이 김일성에게 도전하고 있었다.⁴¹⁾

소련의 후원하에 권력의 정상에 오른 김일성은 이들 경쟁집단들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었다. 조만식이 이끄는 민족주의파는 일찍이 소련에 의하여 거세되었고 남은 권력집단 또는 파벌은 김일성의 빨치산파와 갑산파를 포함한 범빨치산파, 조선계소련인들을 지칭하는 소련파, 중국에서 돌아온 혁명가들로 구성된 연안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과 일본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한 사람들을 망라한 국내파였다. 이중 가장 수가 많은 것이 국내파였고 가장 수가 적은 것이 빨치산파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일성의 권력 기반이 불안정하였으며 김일성은 경쟁세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1967년에 갑산파 제거를 마지막으로 경쟁파벌들을 제거하여 유일지도체제를 구성하기까지 김일성의 권력은 경쟁파벌들과의 연립정권이었으며 이들과의 집단지도체제였다.

김일성은 이러한 경쟁세력들을 종파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들 각 종파는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은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사대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였다.

40) 위의 글.

41)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p. 113~116 참조.

한국전쟁 동안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소련과와 연안파가 더욱 득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전쟁의 실패에 책임을 몰어 김일성에 대한 공세가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오히려 전쟁의 책임을 남로당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역공을 취했다. 남침을 감행하였을 때 남한에서 공산당의 남침을 환영하여 민중폭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가 불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남로당을 비난하였다. 수가 가장 많고 부담스러운 국내파를 가장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것이다. 6·25전쟁의 주도자가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당과 11명에 전쟁의 실패를 전가하고 미국 간첩이라는 죄를 씌워서 1952년 12월 15일에 체포하였고, 휴전 3일 후에 이들을 기소하여 처형하였다.⁴²⁾

그러나 여전히 연안파와 소련파는 건재하고 있었다. 마침 사회주의권의 개인숭배 비판과 수정주의의 여파가 김일성의 정적들을 고무시켰기 때문에 김일성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하여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있는 반대세력들을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명분을 찾는 과정에서 주체라는 개념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⁴³⁾ 1955년 4월의 시점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은 당시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그에 대한 김일성의 대응이 잘 드러난다.

오늘 우리 당내의 혁명활동가들은 쏘련, 중국, 남반부 등 여러곳에서 왔거나 혹은 국내에서 투쟁한 사람들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흔히 종파분자들은 이것을 자기의 종파적 목적에 리용하려고 합니다. 남반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남반부에서 들어온 사람

42) 박헌영에 대한 처형은 1955년 12월에 있었다. 고병철, “한국전쟁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 건설』,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2), pp.12~13.

43) 서대숙 지음,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 95.

들 중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자처하여 나서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만 얻으면 인차 남반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마치 자기가 나서서 일자리를 주선했주어서 밥 먹을 자리나 얻어 준 것 같이 만들고 마치 그들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듯이 하여 그들을 자기 개인활동의 토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시기 리승엽이 이런 식으로 일부 남반부에서 온 동무들을 통락하였습니다.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허가이 같은 자를 실례로 들 수 있습니다. 허가이는 마치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대표적 인물인 것처럼 자처하여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박일우 같은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중국에서 나온 동무들을 간부로 등용하지 않는다》 느니, 《소련에서 나온 사람과 중국에서 나온 사람은 서로 생활풍습이 맞지 않는다》 느니 하면서 계급의식이 약한 동무들을 자기 주위에 규합하려고 쓸라닥쓸라닥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⁴⁴⁾

김일성은 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1955년 12월의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연안파, 소련파 등 적대세력들에 대하여 주체가 없는 사람들과 모조리 비판을 가함으로써 외부의 수정주의 바람에 대한 대항적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박창옥, 박영빈, 허가이, 박일후 등 정적들을 모두 사대주의, 종파주의로 몰아서 비판하면서 사상사업에서 주체가 똑똑히 서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에 박창옥 등이 범한 과오도 그들이 조선문학운동의 역사를 부인한데 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카프’ 즉 ‘조선프로레타리아문

44) 김일성, “사회주의혁명의 현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학동맹'에 참가한 우수한 작가들의 투쟁도 없다. 박창옥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을 연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조아 반동작가인 이태준과 사상적으로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빈동무는 소련에 갔다와서 하는 말이 소련에서는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방향이니 우리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구호를 집어치워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허가이와 박일우의 시비는 당내에서 규율을 약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창옥과 기석복에 대한 비판도 너무 늦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당시에 비판하였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헌영도당과의 투쟁과 반간첩투쟁의 경험을 당원들 속에서 철저히 침투시켜 그들로 하여금 간첩을 정확하게 잘라낼 줄 알게 하여야 합니다.⁴⁵⁾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인민군휴양소에 걸린 그림도 소련 그림이라는 점, 민주선전실 벽에 걸린 도표도 북한의 3개년계획에 대한 도표가 아니라 소련의 5개년 계획 도표라는 점, 인민학교 교실에 걸린 사진이 푸시킨과 같은 소련사람 것만 걸렸다는 점, 교과서를 편찬하는데도 남의 나라 문학작품을 채취하여 실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모두 주체가 없는 탓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제는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말고 우리식을 만들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김일성이 주장한 ‘주체’의 개념이 등장한 인식적 배경이며, 동시에 ‘주체’ 개념의 핵심적 내용이다.⁴⁶⁾

이러한 와중에서 1956년 2월에 있었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개인 숭배 비판 및 격하 연설은 북한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김일성에게는 위기였고, 소련파와 연안파에게는 기회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1956년 2월에 있었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개인

45)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69.

46) 위의 글, p. 469.

승배 비판 및 격하 연설은 북한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김일성에게는 위기였고, 개인승배를 자제하도록 내부단속을 하였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난 지속 분위기와는 달리 이 시기에 김일성의 개인승배 행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⁴⁷⁾

김일성의 반대파들이 이를 문제삼고 나섰다. 김일성 반대파들의 조직적 저항은 1956년 8월의 8월종파사건으로 나타났다. 소련 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행한 개인승배비판 연설에 고무를 받았던 박창옥(소련파)과 최창익(연안파) 등이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기하여 김일성의 지도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무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사대주의적 종파주의자로 몰아서 모조리 숙청하는데 성공하였다. 김일성을 공격하던 윤공흠, 서휘, 이용규, 김강 등이 중국으로 망명하고 최창익과 박창옥이 출당되었다. 이로써 김일성이 연안파 및 소련파 등 반대파를 숙청함으로써 갑산파 단독 권력체제가 된 것이다.⁴⁸⁾

그러나 소련과 중국이 이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북한 내정에 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최창익과 박창옥을 중앙위원으로 복귀시키고 다른 4인에 대한 출당처분도 취소하였다. 김일성으로서는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치욕을 당한 셈이다.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자신의 정적들이 교조주의, 형식주의, 종파주의, 관료주의 등에 젖어있어 혁명과업을 곤란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주체의 확립’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주체라는 말이 이론적이나 논리적 해석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일성 자신이 하나의 구호 형식으로 제기하면서 자신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하나의 이념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47)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p. 206.

48)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0), pp. 301~02.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은 모든 경쟁파벌을 제거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단일 세력의 권력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권력 독점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권력의 상층부, 군부, 주민들에 대한 정비를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정치적 반대자와 경쟁자들을 숙청함으로써 1인독재체제를 굳히게 된 1957년에 이르러 북한주민 대중까지도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을 수 없는 자’로 나눌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숙청된 남로당계나 소련파 및 연안파 등 반대파들의 남은 뿌리를 깨끗이 뽑아야 한다는 권력의 요구뿐만 아니라 농업집단지화 및 개인상공업의 폐지 등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으로 말미암은 대중적 불평불만을 억압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적 상황 속에서 북한은 주민 전체를 상대로 출신 성분과 사상경향을 조사하여 혁명을 지지하는 자와 혁명을 반대하는 자, 즉 정권을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가려내서 적과 아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몇 년 동안 전개된 중앙당집중지도는 자아비판, 고발, 인민재판 등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북한 전역은 히스테리와 공포가 휘몰아쳤던 시기이다. 김일성이 1955년 연설에서 자주 거론하였던 종파들과 정적들을 모조리 숙청하였다. 일제하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주요 분파였던 화요파, ML파 출신들이나 연안파, 소련파 등은 대부분이 숙청되었다.

2. 자주노선의 ‘사상’으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

정적들을 타도하는 소도구로 활용되었던 주체의 개념이 대외적 자주노선의 ‘사상’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몇가지 있었다. 김일성은 대내적으로는 주체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정적들을 타도하였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중소이념분쟁과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주노

선을 표방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중·소 이념분쟁

중소 이념분쟁은 1960년대 내내 지속되면서 주체사상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소간에 갈등이 시작된 것은 1956년 후르시초프의 비밀연설을 전후한 시기부터이나 표면에 드러난 것은 1960년이다. 1960년 4월 중국공산당 기관지 『홍기』가 “레닌만세” 제하의 논설을 통하여 소련의 수정주의 입장을 비판하였고, 이 『홍기』 논문에 대하여 소련은 즉각 중국의 교조주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중소간의 이념분쟁은 60년대의 국경 무력충돌 등으로 70년대 전반까지 격렬한 대립적 관계가 지속되었다.

이 와중에서 북한은 필요에 의해서 뿐아니라 전술적 차원에 의하여 중소분쟁에서 중립을 지키기를 원했다.⁴⁹⁾ 북한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받아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소관계의 악화로 인해 북한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소분쟁의 초기에는 어느 쪽도 지원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려 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빈번히 방문하면서 소련과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북한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안간힘을 다하였다. 김일성은 1956년부터 1961년 사이에 5차례나 소련을 방문하였다. 중국에도 1958년 11월에 거의 한달 가까이 체류하기도 하였으며, 채1년도 되기 전인 1959년 10월에 재차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특별사절단을 수차례 파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1960년 7월에는 김일성은 우호협력과

49)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Columbia Univesity Press, 1988), p. 176.

상호지원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소련과 중국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김일성은 1960년 8월에 후르시초프에게 북한을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후르시초프는 이를 거절하였다.⁵⁰⁾ 이처럼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위하여 고심하였다.

그러나 중소간의 갈등이 너무나 첨예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으로서는 중국과 소련 모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양국으로부터 자주노선을 선택하였다. 북한은 중소분쟁을 통하여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누림으로써 개인숭배 비판등의 내정간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였다.⁵¹⁾

후르시초프의 개인숭배 비판이나 수정주의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지만 소련에 대하여 불평을 직접 토로하지는 않았던 김일성이 소련으로부터 자주노선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소련의 원조가 중단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소련의 원조 중단이 확인된 후인 1962년에 북한은 자력갱생의 정책을 선언하였으며⁵²⁾ 이를 계기로 소련으로부터 자주노선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12월 『로동신문』은 논설을 통해서 “주체에 대한 사상은 우리 당이 자기행동에서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이라고 천명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당의 주체사상”을 반영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라고 주장하였다.⁵³⁾

50)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p. 178.

51) 정우곤, “한국전쟁과 북한의 대중소관계,”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체제건설』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1992), p. 70.

52) “자력갱생의 혁명사상” 『근로자』 1962년 3월호, p. 2~7.

53) “1952년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역사적 의의,” 『로동신문』, 1962년 12월 19일자,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p. 212에서 재인용.

후르시초프가 집권하기 이전까지 김일성은 소련과 스탈린을 철저히 추종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김일성의 소련으로부터의 자주노선 선언은 엄청난 사건인 셈이다. 스탈린시대의 북한은 ‘자주’ 또는 ‘주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정치적·경제적 종속의 전형적 사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존성 때문에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배우자’라는 구호 아래 북한의 소비에트화에 온 정력을 기울였으며 스탈린에게 ‘최대의 경의와 감격’을 표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8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스탈린 대원수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족의 해방자이며 후원자이고 은인이며 벗인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 만세! 이러한 북조선인민의 해방과 발전이 오로지 당신의 두터운 고려와 붉은 군대의 원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조선인민은 깊이 인식하고 당신에게 최대의 경의와 감격의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당신의 원조가 끝끝내 있을 것을 우리 조선인민은 확신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필연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⁵⁴⁾

김일성이 소련으로부터의 자주노선을 결심한 이후 김일성의 소련에 대한 반감은 개인숭배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먼저 나타났다. 김일성의 개인숭배 경향에 대한 소련의 비판에 대하여 북한은 경제적·정치적 내정간섭이라며 매우 노골적으로 반격을 하였다. 당시 김일성의 입장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내는 1963년의 「로동신문」 논설을 보자.

54) 김일성, “스탈린 대원수에게 드리는 편지(1946년 8월 28일),” 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1집』 (서울: 통일원, 1980), pp. 18~19.

어떤 사람들은 한 나라의 당대회를⁵⁵⁾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새로운 단계’의 개시로 묘사하고, 어떤 당의 정책과 결정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공동강령’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다른 형제당에 내리먹이려 하고 있다. 어떤 당의 결정이나 조치는 그 당 내부에서만 의무적인 것이지 결코 다른 당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 특히 소위 ‘개인숭배반대’운동을 다른 당에 내리먹이려 하고 그것을 간판으로 해서 형제당, 형제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들 나라의 당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확실히 ‘개인숭배반대’ 소동에 의해 수많은 형제당이 소용없는 ‘열병’을 앓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입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개인숭배반대’ 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행동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⁵⁶⁾

김일성은 자신의 정권 수립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6.25 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에 많은 지원을 받았던 소련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후르시초프의 개인숭배 비판, 수정주의, 평화공존론 등 자신에 불리한 정책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던 김일성은 이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인숭배 문제는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김일성은 매우 신랄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56년에 이미 개인숭배 문제를 거론하던 자신들의 정적들을 숙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소련에 반발하고 나섰던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5)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한 소련의 제20차 당대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56)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 10. 28. 논설.

중국의 문화대혁명

주체사상의 형성을 가속화시킨 또 하나의 외부적 도전이 196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었다. 문화대혁명이 김일성에게 도전적이었던 까닭은 첫째,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지지하지 않는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라고 비판하였다는 점이며, 둘째, 동구 사회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대중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어떤 면에서는 모택동이 도전한 권력투쟁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관료주의에 대항하여 대중의 불만이 폭발한 면도 있다.⁵⁷⁾ 김일성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나 소련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중국 홍위병들의 발호도 김일성에게는 충격이었다.

소련과의 갈등에 이어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은 북한으로 하여금 외교에서 자주노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몰고갔다. 북한은 1966년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노동신문 논설을 통하여 “제반사실은 우리에게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 시기와 같이 앞으로도 대내외활동에서 독자성을 견지할 것이며 자주노선을 관철하여 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⁵⁸⁾ 나아가서 1966년 10월 5일 제2차 당대표자회의에서는 소련과 중국의 그릇된 노선을 반대한다는 노동당의 주체적 노선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당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단순히 외교적인 마찰의 차원이 아니라 김일성 권력에 위협적인 요인이었다. 제2차 당대표자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이후부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외교적인 마찰이 표면화된 것이었다. 1967년 1월부터 문화혁명을 주도하던 홍

57) 모리 카즈코, 『중국과 소련』 (서울: 사민서각, 1989), p. 88.

58)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6. 8. 12.

위병들은 김일성을 후르시초프와 같은 수정주의자로 비난하고 북한에서 김일성을 반대하는 정변이 일어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면서 김일성 정권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였다.⁵⁹⁾ 김일성으로서는 매우 불쾌한 일일 뿐 아니라 위협적이었다. 김일성은 중국 홍위병의 북한 비판에 대응하여 1967년 1월 26일 해명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지의 홍위병 신문, 벽보 및 빠라들에서는 마치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변>이 일어났으며 이로 말미암아 정치적 불안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듯한 허위선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선전 자료들은 지금 일부 자본주의 국가 통신, 방송 및 출판물들에서 리용되고 있다. -- 오늘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철석같이 통일되어 있다. 당 및 정부지도자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대는 하나의 사상으로 굳게 단결되어 있다.⁶⁰⁾

김일성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련의 우경수정주의, 중국의 좌경모험주의를 모두 반대하고 자주적인 혁명노선을 견지한다면서 주체를 더욱 강조하였다.⁶¹⁾

이 시점에서 발표된 노동신문 논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는 중국의 문화혁명의 영향을 경계하는 논지로 가득차 있다. 중국문화혁명에 대한 대응노선으로서 가장 특징적인 인식은 사대주의에 대한 경계이다.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자주정신을 가지고 혁명과

59)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299.

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통신사 성명,” 「로동신문」, 1967. 1. 27. 이종석, 위의 책, p. 299에서 재인용.

61)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p. 145.

건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장애로 되는 것은 사대주의이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고 떠받드는 노예적 굴종의 사상이다. 사대주의자들은 자기머리로 사고하는 대신에 우선 남을 쳐다보고 남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만을 기다렸다. 그리하여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였으며 남이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다.⁶²⁾

김일성은 당시 북한의 내부상황에 대하여 “해방후 여러곳에서 모여 온 사람들이 혁명사업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당대열의 구성이 복잡하며, 종파분자들이 계속 당의 정확한 정책의 관철을 방해하였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자신에 대한 반대세력들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종파분자들을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낡은 세력 등 여러 가지 딱지를 붙여서 경계하고 있었다.

중국의 ‘모택동사상’ 선언도 북한의 주체사상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모택동사상에 대응해서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독자적 지도사상으로서 김일성사상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이 한층 강조되었던 측면도 있다. 1969년 4월 1일 중국공산당9전대회가 열렸는데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권력에 복권한 모택동은 8전대회에서 결의된 개인숭배 부정을 뒤집고 모택동 숭배를 강조했다. 모택동사상이 당, 국가의 이론적 근거로 되었던 것이다.⁶³⁾

이처럼 중국의 문화혁명은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탈린 사후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가 최초로 주체사상의 아이디어를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내부에서 김일성의 정적들의 도전은 주체사상을 실질적으로 유력한 이념적 도구로서 활용하게 한 계기였으며, 중소간의 이념분쟁을 거쳐서 중국의 문화혁명

62)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6. 8. 12.

63) 박찬식 편역, 『등소평』, p. 206.

등의 대외환경의 도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서 북한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항일무장투쟁 중심의 주체사상의 콘텐츠 형성

북한은 주체라는 개념을 만든 뒤부터 주체의 역사적 뿌리를 항일투쟁에서 찾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던 주체사상의 내용 채우기 작업인 셈이다.

김일성은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데서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문제는 우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항일혁명투쟁과 주체를 연결시켰다. 주체사상은 민족독립운동에서 그 역사적 뿌리를 찾는 학문적 작업에 의하여 역사적 정통성이 분식되어졌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일투쟁의 전통을 1955년부터⁶⁴⁾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였다. 북한 사회과학을 총동원하여 항일혁명운동의 역사 연구를 추진해 1955년에서 1967년 사이에 「력사과학」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1920~1930년대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에 관한 대대적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1979~1983년 사이에 22권으로 된 「조선전사」, 1983년에 「현대조선력사」, 1987년에 「조선통사」가 발간되었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이 사실이 표현되어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사, 민족해방 투쟁사들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리 또는 편찬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64) 김일성은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근로자」 (1955.4)라는 글을 통해 1930년대의 항일빨치산 운동을 자기의 것으로 유일 정통화하는 역사의 왜곡을 시작하였다.

우리가 과거 진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조선혁명을 옹기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⁶⁵⁾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1956년의 8월종파사건을 통하여 권력의 독점을 성취한 김일성은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강화시켜나갔다. 그 일환으로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 및 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교양의 주요 내용들은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과 그 연장선에서 북한의 유일전통으로 항일혁명전통을 내세워 이 둘을 적절히 결합해서 강조하던 사회주의 애국주의 고양 등이다.

소련과의 이념분쟁 이후 독자적 사상 모색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이때 나온 개념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이다.

조선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인민을 그들의 구미에 맞도록 교양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할 수 있다. 조국을 잘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람과 긍지를 높이게 하는 기초로 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주체와 자력갱생의 입장을 가지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주체와 자력갱생의 입장 -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져야 할 입장이며 품성이다.⁶⁶⁾

소련 및 중국과 이념갈등을 하고 있을 때 나온 대안적 사상은 바로 민족주의가 핵심적 사상임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국제공산주의 이론에서 민족주의는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말을 대신 쓰기는 했지만 내용은 민족주의 그 자체이다.

65) 통일원, 「제4차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서울: 통일원, 1988).

66) 리성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근로자』, 1963년 6월호, p. 9~10.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품모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사적 사명은 결코 민족적 긍지를 높이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지신 사명이 민족국가들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조건하에서 각 민족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반드시 자기들 앞에 나선 해방적 사명을 자체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긍지가 필요한 것이다.⁶⁷⁾

사회주의 애국주의는 민족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주로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초기 주체사상의 반사대주의는 민족주의와 정서를 공유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우리조국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동의학의 창시국이며 또 천문학과 금속활자 제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예술분야에서 우리 사상들이 이룩한 성과는 특히 찬란한 것이었다. -- 우리 인민은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한 훌륭한 애국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 있다.⁶⁸⁾

4. 1967년 갑산파 숙청이후 유일사상으로의 발전

소련의 후르시초프에 의한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수정주의가 있는 이후 북한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발전노선 논쟁이다. 당시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세력은 갑산파였으며 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상

67)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력사교양”, 『근로자』, 1964년 11월호, p. 2.

68) 위의 글, p. 4.

황에 대하여 김일성과는 다소 상이한 인식과 정책방향을 추구하고 있었다. 갑산과는 수정주의적 방식을, 김일성은 항일빨치산노선의 강화를 주장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⁶⁹⁾

이념적으로도 다소 갈등이 있었다. 1966년 초부터 조중갈등이 점증하자 중국에서의 모택동사상과 모택동개인숭배 움직임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정통맑스주의적 자세를 견지하려 하였다. 정통 맑스주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김일성 개인숭배 조장을 저어하는 분위기가 대두되었다. 이들은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김일성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명백히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실천적 경험의 종합적 개괄 위에서 제시된 사상으로 이해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조선혁명에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당의 정책노선을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의 유일지도자로서의 이미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체양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⁷⁰⁾

이러한 상황에서 1967년 ‘박금철·이효순 사건’이 이러한 흐름을 일거에 꺾어놓고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유일사상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박금철이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정위원 겸 조직담당비서를, 이효순이 사상담당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이 『일편단심』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박금철의 부인이 박금철 자신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김정일이 이 영화에 대하여 ‘유일적 지도자 김일성’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영화라고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갑산과 전체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잡게 되었다. 이를 명분으로 1967년 5월 당제4기15차전원회의에서 박금철, 이효순을 비롯하여 김도만 사상담당비서, 고혁 문화예술부장 등 관련 인사들이 모조리 숙청되었다.

69)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서울: 들녘, 2001).

70)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1995, p. 295.

이 전원회의에서 유일사상체계라는 말이 이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북한은 유일지도체제 및 유일지도사상 확립의 드라이브가 본격화된 것이다. 1967년 박금철·이효순사건 처리에서 두각을 나타낸 김정일은 그 여세를 몰아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주도하였다.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확립의 내용을 김일성의 절대화에 두고 이를 위해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조선로동당역사연구소」를 「김일성동지혁명역사연구소」로⁷¹⁾ 개편하고⁷²⁾ 여기에 「항일빨치산들의 회상기」, 「김일성동지혁명역사도록」 등을 비치하고 김일성의 유일사상확립을 위한 교양의 본당으로 삼도록 하였다.⁷³⁾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본격화 된 것은 1967년의 소위 박금철·이효순사건에서 부터임을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연설에서 알 수 있다.

당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있는 다음 지난 몇해동안 당건설분야에서 우리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튼튼히 하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하겠습니까.⁷⁴⁾

71) 「김일성혁명사상연구소」의 기능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김병로, 「북한 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통일연구원, 2000), pp.93~104 참조.

72) 이후에 「김일성혁명사상연구소」로 개칭됨

73)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 108.

74) 김일성, 「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21차전원회에서 한 결론, 1970년 7월 6일), 「김일성저작집 25」.

김일성은 유일사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파벌을 부각시켰다. 주요 파벌은 이미 숙청되었지만 파벌의 문제점을 강조함으로써 유일사상의 존재근거로 주장하였다. 파벌의 망령을 거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며 현재의 유일사상을 과거의 파벌로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란 김일성 자신의 권력 이외에는 모두 파벌로 간주하는 것이며 자신의 사상과 노선만이 정당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김일성은 유일사상의 반대말은 파벌싸움이라고 보았다. 김일성은 유일사상의 정당성을 이조시대의 파벌싸움의 폐해에서 찾아내었다.

지난날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지난날 우리나라가 망한 것도 주요하게는 봉건통치배들이 파벌싸움만 일삼고 단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리조봉건시기에 지배층 안에서 친청파, 친로파, 친일파와 같은 여러파벌들이 국사를 제쳐놓고 밤낮 권력다툼만 하다보니 결국 우리나라가 일제놈에게 먹히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다음 의병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이 실패한 주요한 원인도 바로 파벌싸움에 있었습니다. 그때 민족운동자들은 조선에만 파벌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에 가서까지 파벌싸움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광복단이며, 홍업단이며, 군비단이며 하는 것들이 서로 싸웠다면 마지막에는 신민부요 참의부요 정의부요 하는 따위의 수많은 파를 만들어 가지고 파벌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⁷⁵⁾

북한은 유일사상의 내용을 북한의 실정에 맞는 주체사상이라는 것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회주의에도 각각의 유일사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음의 연설이 이를 잘 말해준다.

75) 김일성, “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21차전원회에서 한 결론, 1970년 7월 6일), 『김일성저작집 25권』.

지난 기간의 오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결론은 한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로선과 정책만이 있을 수 있으며 결코 두가지 사상, 두가지 로선과 정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반드시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오직 그렇게 하여야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투쟁 경험이 증명하여주고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이 또한 이것을 증명하여주고 있습니다. 레닌은 맑스주의를 로씨야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혁명리론을 내놓았으며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은 다름아닌 바로 레닌의 사상과 레닌이 내놓은 정책에 근거하여 투쟁함으로써 10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혁명도 처음에는 진독수의 우경투항주의로선, 리립삼의 좌경모험주의로선 때문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으며 그후에도 술한 파가 생겨 혁명에서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결국 모택동동지가 내놓은 사상에 근거하여 단결하였고 그 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중국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월남혁명도 호志明동지의 사상과 정책에 의거함으로써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으며 또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혁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당안에는 -- 오직 전당이 하나의 사상,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합니다. 76)

1967년 갑산과 숙청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승격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유일체계의 확립의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주도자는 김정일이라는 것에서 북한의 정치권력과 정치의 도구로서의 주체사상간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76) 위의 글.

5. 주체사상의 기본노선 정립과 초기 주체사상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체사상의 내용은 처음에는 ‘주체의 확립’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외연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사상에서의 주체라는 개념이 형성된 뒤부터 주체사상은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외교에서의 자주의 기본노선으로 정식화되었다. 각 개념의 발전을 시기별로 보면 1955년에 사상에서의 주체 개념에 이어, 1956년에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에 정치에서의 자주, 1962년에 국방에서의 자위, 1966년에 외교에서의 자주 개념이 추가되었다.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 1962년 12월이었으며, 주체사상에 대한 최초의 정식화는 1965년 4월에 이루어졌다. 김일성이 반동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이던 김일성은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에서 주체확립과 관련하여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립장”이라고 설명하였다.⁷⁷⁾

주체사상이 지도사상으로 규정되었던 것도 1965년경이다. 그 증거는 「근로자」에 실린 한 논문에 나타나 있다.

주체사상은 우리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함에 있어서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적인 지도사상이며 우리당과 인민의 모든 활동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 립장이다. 당은 새사회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그러한 것처럼 문학예술 분야에서도 주체사상의 구현을 요구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⁷⁸⁾

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5. 4. 17.

78) 안함광, “문학예술에서의 주체문제,” 「근로자」, 1965년 12월(24호), p. 19.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주체사상이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라고 선언되었으며,⁷⁹⁾ 1970년 5차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이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확인되었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총결기간 우리 당활동에서의 가장 주되는 총화의 하나입니다.⁸⁰⁾

황장엽에 의하면 주체사상의 기본내용은 전적으로 김일성이 당시 북한의 실정에 맞게 내놓은 것이었다고 증언했다.⁸¹⁾ 다만 황장엽과 같은 중앙당비서실 이론서기들에 의하여 조금씩 다듬어졌다는 것이다. 황장엽은 1958년부터 조선노동당 비서실 이론서기로 임용되었으며 주체사상을 다듬는 역할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맑스-레닌주의를 그대로 따르는 교조주의에 대한 경계는 황장엽의 개인적 경험과도 합치되었다고 한다. 중소분쟁이 한창이던 1960년 10월 모스크바에서 81개국 공산당·노동당 회의가 열렸을 때 당시 단장 김일과 사상비서 김창만과 더불어 이론고문으로 동행했을 때 황장엽은 소련과 중국측에서 각자 자기나라 이익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해석하는 것을 보고는 맑스-레닌주의에는 명백한 과학적 기준이 없기

79)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김일성저작집 21』(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88.

80)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

81)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 137.

때문에 절대로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교조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이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⁸²⁾ 황장엽은 맑스주의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창조적 입장과 함께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 입장을 지키는 것을 주체사상의 기본요구로 덧붙이게 되었다고 한다.⁸³⁾

초기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요약하면, 큰 나라들을 무조건 숭배하고 자기나라를 알보는 사대주의와, 큰 나라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적 명분 뒤에서 주체사상이 실제로 행했던 기능은 정적들에 대한 타도의 명분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초기의 주체사상은 소련의 개인주의, 우상숭배 비판,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이들의 변화가 내부로 침습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김일성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념적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정권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이데올로기인 셈이다. 나아가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매개로 내정간섭을 하던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자주노선을 견지한다는 측면에서 대외관계의 원칙으로 자리잡아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맑스-레닌주의의 대안은 없었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인정은 하되 맑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북한식의 해석을 강조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행동의 지침에 불과하며 그것은 실천 속에서 검증되고, 보충되며, 풍부화되어 나가야 한다”⁸⁴⁾고 보았다.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혁명적 진수를 파악하며 그것을 혁명의 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계에서 맑스-레

82) 위의 책, p. 132.

83) 위의 책, p. 137.

84)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6. 8. 12.

닌주의는 사회주의이론의 고전으로 인정은 하되 자주노선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사상을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70년대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황장엽의 역할

김일성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주체사상은 황장엽의 인간중심론의 철학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철학적 원리로 대체되었다. 첫단계가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되, 큰 나라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대주의를 반대한다는 대외적 자주성을 근간으로 하는 개념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면, 황장엽의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새롭게 구성된 것이다.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에서 주체라는 어휘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되었다. 첫째 단계의 주체는 대외적 자주, 경제적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을 의미한다면, 둘째 단계의 황장엽판 주체사상은 인간이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개념이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의식을 가지고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논리이다. 첫단계의 주체사상이 기본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이념적 전체로 한 사상이라면 황장엽의 인간중심적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상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개념들이 주체라는 하나의 글자로 담겨져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첫단계의 주체의 개념은 반사대주의 또는 자주가 핵심적 내용이며, 영어로는 self-reliance로 번역할 수 있는 개념이며, 둘째 단계의 주체의 개념은 주인 또는 주도자의 뜻으로서 영어로는 subjecthood, lord, initiator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개념이다.

1. 황장엽의 인간중심론 주체사상 개발의 계기

황장엽이 인간중심론을 생각해내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의 주체사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황장엽이 인간중심론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내게 된 계기는 김일성대학 총장시절이던 1966년에 필화사건에 휘말려서 곤욕을 치르게 되면서 시작된다. 김일성대학 창립 20주년 행사에서 발표한 자신의 논문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글이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키고 인테리의 역할을 강조한 반당적 수정주의”로 몰렸으며 김일성에게까지 보고되었다. 당시 수정주의자로 비판받던 갑산파⁸⁵⁾와 김영주를 몰아내려는 김정일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던 정쟁의 바람에 황장엽도 휩쓸리게 되었던 것이다. 황장엽은 큰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황장엽과 견해를 같이하던 중앙당 비서실 동료들은 모두 철직되었을 만큼 큰 문제로 비화했다. 황장엽은 ‘이론적 과오’에 기인한 신변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를 풀기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고심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한다. 고심 끝에 “계급이 아닌 인간 자체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한다.⁸⁶⁾ 황장엽은 스탈린의 개인독재와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인간자체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계급의 이익을 절대화한 맑스주의의 반인도주의적인 계급지상주의 사상의 표현인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이론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보게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동안의 인류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는 맑스주의 계급투쟁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에서 벗어나, 인류역사를 인간의 발전역사로 봐야 한다는

85) 갑산파는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전원 숙청되었다.

86)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 155.

인간중심적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인간중심의 역사관의 줄거리는 1968년 말에 만들어졌으며 1969년부터 1970년 10월 사이에 사상의 체계가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황장엽은 아직 자신의 이론적 과오에 대한 김일성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서 자신의 글을 발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⁸⁷⁾

그 이후 김일성의 황장엽에 대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으며 황장엽의 신임은 회복되었다. 황장엽은 1970년 10월 초순, 김일성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자신은 3년 동안 자신의 사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과, 맑스주의의 오류를 깨달았으며,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확고히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황장엽은 김일성이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 사상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대신 맑스주의가 유무론 등의 개관적 법칙만 지나치게 강조할 뿐 역사의 주체인 인간의 역할을 옹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주체사상을 철학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황장엽의 보고에 만족해하며 총장직은 이름만 걸어놓고 휴양소에 나가서 주체철학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⁸⁸⁾

황장엽의 주체사상은 1972년 9월 17일에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마이니찌신문에 대한 김일성의 서면답변 형식으로 발표된 이 글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사람중심의 사회역사 원리에 기초한 사상을 내놓게 되었다. 이 문헌에서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에 대한 정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87) 황장엽, 『사회역사관: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 II』 (서울: 시대정신, 2001) 참조.

88)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 162.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⁸⁹⁾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은 1973년에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록 『철학강좌』에 반영되었다. 4대 자주의 노선과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담은 주체사상이 어느정도의 체계를 갖추어 주체사상 교육의 교본으로 발표된 셈이다.⁹⁰⁾

2. 인간중심론 주체사상의 내용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이 이전의 맑스-레닌주의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는 맑스주의의 유물론을 뒤집어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맑스의 유물론이 토대가 상부구조와 사람의 의식을 규정한다는 명제로 특징지어진다면 주체사상은 사람이 물질과 세계의 주인으로서 능동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체사상이 물질이 의식을 결정한다는 기왕의 교리를 버리고 정신이나 의식의 능동성을 내세우는 관념론으로 바뀌어진 것이다.⁹¹⁾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대한 황장엽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황장엽은 주체사상이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고 추진하여 나가는 주체를 계급이 아닌 인민대중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맑스-레닌주의와 가장 크게

89) 위의 책, p. 107.

90)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록, 『철학강좌』 (극동문제연구소, 1973),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 연구』 (나남출판, 1993), p. 35에서 재인용.

91) 신일철, 위의 책, p. 38.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황장엽에 의하면 인민대중은 사회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회성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운동의 주체를 인민대중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를 계급으로 보는 계급주의자들의 견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이익이 곧 사회전체의 이익이기 때문에 사회적 운동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계급적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계급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황장엽은 인간의 본질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의 존재론과 운동론을 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⁹²⁾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필요하며,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철학의 사명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⁹³⁾

황장엽의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황장엽은⁹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온갖 예측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는 요구인 ‘자주성’과 객관세계를 자기 요구에 맞게 개조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인 ‘창조성’으로 보았다. 동물의 운동에서는 동물과 객관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궁극적으로는 자연환경이 결정적 작용을 하게되며 따라서 동물의 운명의 주인은 동물자신이 아니다. 동물은 자연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한 부분이다. 동물은 자연환경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생존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이 동물의 생존에 적합하지 않게 변화되었을 때에는 멸종하지 않을 수 없다.

92)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 391.

93) 위의 책, p. 156.

94) 황장엽은 ‘우리’라는 주어를 붙여서 자신의 역할을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자신 혼자만의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포함한 팀에 의한 작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에 의거하여 객관세계를 자기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조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객관 세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자신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발전, 사회적 협조성의 발전, 다시말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수준에 의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도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면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자연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자체의 힘으로 생활수단과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면서 생존과 발전을 실현해 나간다.

인간의 운명은 자연의 변화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자신의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간은 자연에 종속된 자연의 한 부분인 것이 아니라 자연을 주동적으로 개조하여 이용하는 자연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자연의 주인과 자연에 예속된 존재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황장엽은 인간에게는 동물에는 없는 사회적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자주성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요구이며 창조성은 객관세계를 인간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창조적 힘이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인간의 의식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뇌수의 의식작용을 통하여 자기의 생활적 요구에 무엇이 맞으며 무엇이 맞지 않는가, 무엇이 이익으로 되고 무엇이 손해로 되는가 하는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이해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력이 발전하게 된다. 이해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의식능력(정신력)에 기초하여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타산되어야만 인간은 타고난 본능적인 삶의 요구가 아니라 세계의 주인,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으로 살려는 삶의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⁹⁵⁾

95)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p. 109; 황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황장엽은 인간의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인간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⁹⁶⁾

또 한편으로는 신의 개념과의 비교에서 인간의 주도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계몽주의적 사상의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다. 황장엽은 인간과 세계의 상호관계 문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자기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세계관에 대한 논의에서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황장엽은 신이 세계만물을 창조하고 세계의 운동변화를 지배한다고 보는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의 운명은 신의 의지에 따라 타고나게 되며 인간은 타고난 자기운명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에 반하여 오늘날에는 신 중심의 종교적 세계관 대신에 인간이 인간자신을 믿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은 바로 이런 지성사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황장엽의 이러한 인식은 북한의 전체주의체제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사상임에는 틀림없다. 전체주의에서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주장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김일성과 그 지도부에 의하여 수용되었던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째, 김일성이 소련의 사상인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하고 싶었지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유보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황장엽의 새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사상이라는 점에서 김일성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엽, 『인간중심철학의 몇가지 문제』(서울: 시대정신, 2000), p. 23.

96)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 376.

둘째, 당시의 천리마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황장엽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논리의 주체사상은 천리마운동의 군중노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실제로 천리마 운동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1970년 무렵이면 1967년의 갑산과 숙청, 1969년의 빨치산과 숙청을 마지막으로 해서 정치세력화 되어 있었던 모든 파벌을 숙청하고 해체한 뒤 유일지도체제를 완전히 구축한 시점이다. 이제는 경제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노동동원의 이념적 도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김정일이 전면에 등장하여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바람몰이를 시작하기 직전의 시점으로서 주체사상은 노동동원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

3. 황장엽의 인간중심론 주체사상의 출처

황장엽은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1959년 이후 전개된 생산경쟁운동인 천리마운동에서 얻었다고 한다. 황장엽에 의하면 천리마운동은 단순히 생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즉 생산과정에서 서로 돕고 이 끌어주는 집단을 만듦으로써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천리마 운동의 밑바탕이 된 사상은 군중노선이었다. 군중노선이라는 개념은 중국공산당에서 벌여온 것인데 당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군중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며 하나로 뭉치게 하고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이룩한다는 의미이다. 황장엽은 이 천리마 운동에 이론적 의의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것이 주체사상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었다

고 한다. 황장엽은 이 운동을 통하여 인간교양과 경제발전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내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며 군중노선을 기초로 하여 주체사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⁹⁷⁾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군중노선을 포괄하는 ‘동원의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다. 당시 북한노동당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과 군중노선의 두가지로서 서로 별개였다고 한다. 그런데 황장엽이 ‘주체는 곧 군중’이라는 관점에서 주체사상과 군중노선을 통합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체는 군중이라는 식이다. 당시까지 self-reliance라는 개념으로 쓰던 주체라는 말을 subjecthood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황장엽이 만든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명제로서 군중노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논리이다.

그런데 황장엽판 주체사상의 핵심 개념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 ‘자기운명의 주인’ 중에서 ‘혁명의 주인,’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1965년에 이미 「근로자」의 신진균의 글⁹⁸⁾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당시에 이미 유사한 관점들이 북한에서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은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모든 활동이 인민의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사업으로 되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 - 이것은 오늘날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를 전제로 한다. 혁명이 그 나라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이라는 이 명제에는 혁명의 지도 역량도 그 속에서 나와야 한다

97)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p. 134~135.

98) 신진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 「근로자」, 1965년 10월호, p. 8.

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⁹⁹⁾

혁명하는 인민은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하여야 하며 혁명의 주인, 자기운명의 주인답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가야 한다.¹⁰⁰⁾

그러나 신진균의 논문에서는 ‘혁명의 주인은 당과 인민’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특히 인민보다 당이 먼저 거명된다. 인간중심의 황장엽 사상과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라는 이 사실은 원래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하여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심으로서 결정하고 집행하며 주로 자체의 힘으로, 자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이것은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¹⁰¹⁾

황장엽이 인간의 본질로서 중시하고 있는 자주성 및 창조성의 개념도 이미 1965년 신진균의 논문에서 나타났다.

자주성-창조성 원칙은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우선 다른 나라 당과 인민들에 대한 관계 분야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된다. ¹⁰²⁾

99) 위의 글, p. 7~8.

100) 위의 글, p. 15.

101) 위의 글, p. 10.

102) 위의 글, p. 11.

당시 북한에서 이러한 사상과 인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몇가지 지적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맑스의 유물사관에 대한 경제주의적 해석과 의식주의적 해석간의 논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레닌이 사적유물론에 대한 경제주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사회주의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사상의식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이 발전된 것이 노동자들을 사상의식적으로 지도하는 당의 전위적 역할론¹⁰³⁾인데 레닌의 이러한 사상이 소련에서 1950년대에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한 적이 있었다.

원래 맑스의 유물론은 토대로서의 생산관계가 궁극적으로 상부구조 및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고 가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레닌은 당 역할의 중요성과 선차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1956년 이후 소련에서 본격적으로 상부구조와 의식의 선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된 것이다.¹⁰⁴⁾ 이데올로기와 선전선동을 통한 사회동원이 전체주의에 편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결국 레닌과 스탈린은 맑스주의의 토대와 상부구조의 선차성을 뒤집은 셈이다. 그래서 현실 사회주의 이론을 맑스-레닌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결국 황장엽의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은 의식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유물론을 사람위주의 관념론으로 개조한 레닌과 스탈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적유물론 논쟁에서 토대와 상부구조, 물질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들이 인간중심 주체사상의 지적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황장엽은 인간도 물질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발전된 물질로서 물질세계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물질세계를 자기요구에 맞게 개조하면서 자기

103)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p. 385.

104) 소련에서 토대-상부구조 논쟁에 대한 글은 신일철, 『북한주체철학 연구』, pp. 103~147 참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재이라는 인식을 발전시켰다.¹⁰⁵⁾ 인간은 자연적 존재와는 달리 정신을 가진 물질적 존재인 만큼 사상의식을 경제제도의 반영이라고 보는 유물론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보았다.¹⁰⁶⁾

또한 주체사상의 이론적 출처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황장엽 식의 사상은 서양에서는 황장엽보다 오래 전 1880년대에 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pragmatism으로 알려진 John Dewey의 이론이 그것이다.¹⁰⁷⁾ 존 듀이에 의하면 인간이 인간다운 특징을 가지는 것은 인간이 mind를 가지고 있는데 mind란 사유능력이며, 이 사유능력은 인간이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상황을 정의하여 행동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존 듀이는 이 사유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들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Mead는 사유능력의 개념에서 사회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인간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연약함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서로 집단으로 협동하게 한다는 것이다.¹⁰⁸⁾ 황장엽의 생각과 매우 유사한 대목이다.

또한 앞에서 황장엽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계몽주의사상의 인간론도 황장엽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5) 황장엽, 『인간중심 철학의 몇가지 문제』, p. 73.

106) 위의 책, p. 83.

107) John Dewey, *Human Nature and Human Conduct* (New York: Henry Holt, 1922). 이러한 생각의 첫 언급은 John Dewey, *Psychology* (New York: Harper Brothers, 1886).

108) George Herbert Mead, *Mind, Self &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4. 인간중심론 주체사상 개발에서의 황장엽의 역할

황장엽의 탈북 이후 한호석¹⁰⁹⁾은 주체사상 형성과정에 있어서 황장엽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다. 한호석은 1960년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김정일의 주체사상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에 주체사상을 체계화하는데 중심역할을 했던 최고의 이론가를 양형섭이라고 주장했는데¹¹⁰⁾ 이는 잘못이다. 한호석에 의하면 양형섭이 사회과학 원장으로 있었던 1972년에 열린 사회과학자대회에서 주체사상을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사상으로 채택할 것을 선언했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양형섭이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을 개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1972년 4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비서 양형섭이 ‘조선사회과학자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보면 양형섭이 설명한 주체사상은 황장엽이 개작하기 이전의 초기단계의 주체사상이다. 양형섭의 연설에는 오늘날 주체사상을 인간중심의 사상이라고 하는 핵심 내용은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1950년대 김일성이 주장한 반사대주의 노선이 반복되어 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은 귀절이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이 사대주의에 몰들어 독자성과 자주성을 잃게 되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언제나 비판적으로 대하며 다른 나라들의 좋은 것, 선진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자가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에 유리하게 받아들이는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09) 캐나다 거주 친북학자로서 [www/onekorea.org](http://www.onekorea.org)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110) 한호석, “황장엽사건에 대한 분석적 이해,” (<http://www.onekorea.org>), p. 3.

양형섭의 이 연설 후 불과 몇 달 후인 1972년 9월에 황장엽의 인간중심론의 새로운 개념의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김일성이 1972년 1월에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발표한 글¹¹¹⁾에서도 주체사상의 내용은 1972년 9월의 문건과 다르다. 여기서도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972년 9월 이후의 주체사상은 이전의 주체사상과 확연히 구별된다. 그런 점에서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의 형성에 황장엽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

북한의 황장엽 비판

김정일은 국내파2세 학자들을 주체사상 이론 개발에 동원하고 황장엽은 배제하였다. 황장엽이 고집세게 주체사상을 보편적 진리로서 철학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3년 이후 황장엽은 점차 주체사상 개발의 본류에서 배제되었다. 황장엽이 주체사상 이론개발에서 가장 활발히 했던 시기는 1972년 9월 문건이 발표되던 시기이후 불과 몇년까지이다. 주체사상 개발에 참여한 시기는 이론서기로 임명된 1958년부터 1974년경까지이며 김일성의 배려아래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 개발에 전념했던 것은 1960년대 말부터 1972년까지 3년 반이라고 한다.¹¹²⁾

대신에 그는 1979년 10월부터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직을 맡아 대

11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1월 10일), 『김일성저작집 27』, p. 25.

112)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 375.

외적 선전과 중앙당간부들에 대한 주체사상 학습의 임무를 맡게 되었고, 중앙당 과학교육담당비서직을 겸임하였다. 황장엽의 강의는 독자적인 사상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 당위원회에서 써주는 강의안에 근거하여 학습회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 1984년부터는 주체사상연구소장과 당국제비서를 겸임하였으며, 1993년 말부터 국제담당비서를 다시 맡기도 하였다.

김정일의 권력에의 전면 등장이후 황장엽이 주체사상 개발의 역할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북한문건에 나온 황장엽의 기본입장에 대한 비판에서 알 수 있다. 황장엽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이 이미 1973년에 나왔다.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을 발표한 문건인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발표된 지 1년이 되는 때인 1973년 9월에 「근로자」가 낸 기념논문¹¹³⁾에서 계급이론을 왜곡하고자 하는 관점과 계몽주의적 관점을 정면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모두 황장엽을 겨냥하는 비판이다.

로동계급의 해방사상인 주체사상의 계급적 성격을 모호하게 하거나 그 혁명적 진수를 왜곡해서는 안된다. 주체사상은 근로하는 사람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학설로서 계급적 입장을 떠나 사람일반에 대한 사랑을 설교하는 기회주의적 리론을 철저히 배격한다. 그것은 또한 저들의 협소한 계급적 리익을 가리우기 위하여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에 대하여 떠들어댄 부르주아계몽사상과도 근본적으로 구별된다.¹¹⁴⁾

주체사상 연구는 한동안 황장엽의 주체사상 기초연구와 김정일팀의

113)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자,” 「근로자」, 1973년 9호.

114) 위의 글, p. 4.

수령절대주의 연구로 이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황장엽이 김정일 팀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김일성의 권유로 주체사상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장엽에 의하면 김정일이 노리는 것은 수령독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지 주체사상 이론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황장엽 자신은 수령의 개인독재를 정당화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적당히 강조하면서 주된 초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두었다고 한다.

결국 주체사상을 인간중심의 역사관과 보편적 진리에 기초한 독자적 철학체계로 발전시키려는 황장엽의 주장과, 계급주의적 입장에서 수령 우상화와 수령개인독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김정일 세력들의 주장 사이의 사상적 대립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¹¹⁵⁾

김정일은 황장엽을 무시할 수는 없어도 끊임없이 견제하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중심의 철학으로서의 주체사상과 수령중심의 주체사상간의 차이인데 이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은폐하고 엉뚱한 논점을 끌어들이어 황장엽을 비판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장엽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두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황장엽의 인간중심의 사상을 인생철학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 황장엽에 의하면, 1980년에서 1981년경에 김정일 이름으로 나온 글을 1974년 4월 2일에 발표한 것으로¹¹⁶⁾ 날짜를 소급하여 발표한 한 글에서 황장엽 관련 부분이 있다. 이 글에서 김정일은 한 사회과학자(황장엽을 칭함)가 주체철학과 관련하여 의견을 적은 편지를 자신에게 주었는데 읽어보니 주체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철학’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황장엽의 주체사상을 자신의 것과 구별하고 비

115)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 192.

116) 김정일, “주체철학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이 1974년 4월 2일 조선로동당 이론·선전일군들과 한 담화).

판하기 위하여 황장엽의 것을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하는 문제를 논하는 하나의 인생철학”이라고 비판하였다. 주체사상 형성과정의 처음부터 황장엽은 영똥한 주장을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조작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물질-의식의 관계와 세계-사람의 관계라는 논점으로 황장엽을 비판했다. 비판의 요점은 맑스·레닌주의 관점에서 볼 때 존재론적 실재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추상화된 실재를 표현하고 있는 “물질”이라는 범주는 전체(totality)로서의 세계를 표현하는 철학적 범주이며, 김일성의 주체철학은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황장엽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원리를 폐기한 조건에서 사람-세계의 관계문제를 해명하려고 하였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황장엽은 맑스·레닌주의가 제기하고 해명한 철학의 근본문제를 낚고 해묵은 관념론의 논제들과 결부시킴으로써 사실상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원리를 폐기했다는 것이다. 황장엽의 관점은 김일성주의가 맑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원리를 폐기하지 않고 그 역사적 공적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철학적 원리 안에 종속적 계기로서 포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¹¹⁷⁾ 황장엽을 비판하기 위하여 김일성이 싫어하는 소련의 맑스·레닌주의를 다시 끌어들여서 유물론을 부활시켜놓은 것이다.

황장엽은 이처럼 인본주의 사상을 주창하고 고집스럽게 고수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남한으로 오게된 것으로 보인다.

117) 한호석, “황장엽류의 주체철학 해석에 대한 북(조선) 내부비판,” (<http://www.onekorea.org>), p. 10.

5. 새로운 주체사상의 1972년 헌법에의 명기

인간중심론 주체사상이 최초로 담긴 글인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¹¹⁸⁾가 발표된 1주년 되는 1973년 9월에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는 1주년 기념논문을 실었다.¹¹⁹⁾ 그 기념논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령님의 이 로작에는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것이 나오게 된 력사적 경위,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 주체사상의 요구와 그 기초 등 주체의 위대한 철학사상의 근본문제들이 전일적인 체계로 정연하게 밝혀졌다.¹²⁰⁾

이 인용문을 통하여 1972년 9월의 문건이 북한 주체사상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글은 또한 “수령님께서 내 놓으신 이 위대한 사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밝혀주고 혁명의 원리를 새롭게 조명해준 천재적인 사상”이라고 평가하였다.¹²¹⁾ “역사상 처음”이라는 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개발한 주역이 황장엽이라는 것은 황장엽 본인의 증언을 통하여 입증된 셈이며, 또한 황장엽의 주체사상이 이전의 주체사상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도 입증된 셈이다.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주체사상은 북한 지도부의 이념체제로 기반

118)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일본 마이니찌 신봉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9월 17일), 『김일성저작집 27』.

119) 근로자, “주체사상의 혁명적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자” 『근로자』, 1973년 9호, p. 2~11.

120) 근로자, “주체사상의 혁명적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자”, p. 2~11.

121) 위의 글, p. 3.

을 굳히게 되었다. 김일성은 인간중심론으로 정립된 주체사상이 새롭게 만들어지자 '사상의 자주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를 공식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5기 1차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하였다. 최초로 헌법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1972년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7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고 규정하여 1948년 헌법의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는 조항보다 주체사상의 내용이 더 가미된 구절로 바뀌었다. 1980년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에서 삭제하였다.

『근로자』의 논평에 의하면¹²²⁾ 1972년의 새헌법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헌법”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새헌법은 “우리 인민의 끊어넘치는 열망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는 국가주석제를 제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72년 12월의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의 권력을 이전의 집단지도체제적 성격의 헌법에서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적 성격의 헌법으로 바꾼 것이다. 헌법에는 김일성의 개인독제가 강화되었는데 헌법의 이념은 인간중심주의로 포장된 것이다. 주체사상은 유일체제 주석제의 유일사상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는 이미 김정일의 북한 정치의 전면에 부상해있던 시기인 만큼 김정일의 영향이 컸다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122) 근로자, “새 사회주의헌법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선진적인 헌법,” 『근로자』, 1973년 1호, p. 59.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을 발표한 문건인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발표된지 1년이 되는 때인 1973년 9월에 「근로자」가 낸 기념논문¹²³⁾에서 주체사상의 효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대의 보편적 진리를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한없이 위대하며 간고한 혁명의 시련을 통하여 검증된 것으로 하여 무비의 힘을 가진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비상히 풍부하고 백과전서적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과학리론적으로 깊이 해명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도에 이르기까지 밝혀주고 있는 것으로 하여 끝없이 생동하고 창조적인 이론이다.¹²⁴⁾

123)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자,” 「근로자」, 1973년 9호.

124) 근로자,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자,” p. 10.

V. 70~80년대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김정일의 역할

1. 김정일 주도의 주체사상 개발

주체사상 발전의 셋째 단계는 주체사상의 개발이 황장엽의 손을 떠나서 김정일의 주도로 넘어가면서 수령절대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전개된 단계이다. 이 단계의 주체사상은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김일성우상숭배를 강화하고 대를 이은 충성을 유도하는 정치적 배경의 영향을 받았다.

이 단계는 김정일이 권력의 실세로 전면에 부상한 것과 관련이 있다. 김정일은 대학을 졸업한 해인 1964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당에 입문하여 정치를 시작하였으며, 1966년 2월부터는 당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서 영화사업을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김정일은 1967년 갑산과 숙청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권력투쟁의 전면에 부상할 수 있었다. 갑산과를 숙청한 직후부터 북한은 그 동안의 집단지도체제를 김일성의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김정일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가령, 김정일은 1967년 4기 15차 전원회의가 끝나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¹²⁵⁾ 김정일이 김일성 유일사상체계확립과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김정일은

12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락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99.

1969년 3월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1970년 10월 선전선동부 문화예술 부문 담당 부부장, 1972년 1월에 당선전선동부 부장에 올랐다. 드디어 1973년 9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7차전원회의가 비밀리에 개최되어 김정일은 조직과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비서 및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74년 2월에는 만 32세의 나이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¹²⁶⁾ 당의 수뇌부에 올랐다. 김정일이 정치위원이 된 것은 김일 등의 추대발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후계자로서 공식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당중앙으로 지칭되면서 명실상부한 후계자의 위치를 장악하게 되었다.

후계자로 공식지위에 오른 것은 1974년이지만 김정일은 오래 전부터 후계자로서 역할을 해왔고 북한지도부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 전부터 김일성의 측근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하자고 종용했으나 김일성이 만류하여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한다.

김일성에 의하여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후계문제가 거론된 것은 1971년 6월에 개최된 사로청 6차대회에서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강령적 연설을 한 것이며, 이어서 『근로자』가 같은해 6월호에 관련 논문을 실었던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¹²⁷⁾ 1971년 10월에는 김정일 자신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 혁명하자는 연설문을 내놓을 정도로 후계자로서의 입지가 확보되어 있었던 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얼마전에 있던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청년들을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 하도록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강령적과

126)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73.

127) “모든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자,” 『근로자』, 1971년 6호, p. 15.

업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청년들을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입니다.¹²⁸⁾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전원회의에서 김영주를 사실상의 2인자 자리였던 당조직부장에서 부총리로 강등시켰고 다시 양강도 산골로 보내 연금시킴으로서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974년 4월 25일자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처음으로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장악의 한 수단으로서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작업에 들어갔다. 1974년에 유일사상확립10대원칙을 발표했으며 구호나무 발굴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김일성 우상화작업을 추진하였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 자신의 후계구도의 이념적 도구로서 활용되었던 것이다. 황장엽이 인간중심주의적 사상에 관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설명하면서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변증법을 근본적으로 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김일성은 자신이 마르크스나 레닌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자기이름으로 발표를 못하게 했지만, 김정일은 마르크스 철학과는 달리 인간중심의 새로운 철학원리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황장엽의 사상에 흥미를 갖고 이 사상에 근거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자 했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자신의 후계구도의 핵심적 도구로 인식하고 김일성의 우상화 사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을 주

128) 김정일, “청년들을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무장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 사로청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1일), 『김정일선집』 제2권, p. 305.

도하였다. 김정일이 주도한 주체사상의 개발은 국내파 제2세대 이론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미주평화통일연구소장 한호석은 2세대이론가들은 만경대혁명학원출신들로서 항일무장투쟁참가자들의 후손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후손들로서 당·정·군 주요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심인사들이라고 주장하였다.¹²⁹⁾

2.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

선전선동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정일은 황장엽판의 인간중심론 주체사상을 활용하여 기존의 북한 역사와 정책을 주체사상의 논리로 일색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김일성의 61세 생일을 맞는 1973년 4월호 「근로자」에 실린 주체사상에 대한 특집기사이다. 「근로자」 4월호에 실린 8편의 논문 모두가 주체사상 관련 논문이다. 주체사상이 당시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때 실린 논문은 모두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최초로 담은 1972년 9월의 논문을 텍스트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역사와 정책을 인민대중 중심의 주체사상으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8편의 논문 중에서 오진우, 서관희 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처음 두 편의 논문은 무기명의 논문이다. 황장엽이 첫 번째 논문의¹³⁰⁾ 저자이거나 황장엽의 지도에 의한 공동저자의 논문일 가능성이 있다. 김일성 이름으로 발표된 글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황장엽의 이름은 빠진 것으로 짐작된다.

129) 한호석, “황장엽사건에 대한 분석적 이해,” p. 9.

130)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 가치,” 「근로자」, 1973년 4호.

첫 논문은 주체사상에 대한 총론이다. 1972년 9월의 김일성 명의의 논문에서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말하면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글은 “수령님께서 내 놓으신 이 위대한 사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밝혀주고 혁명의 원리를 새롭게 조명해준 천재적인 사상”이라고 평가하였다.¹³¹⁾

무기명의 두 번째 논문은¹³²⁾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일가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위대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서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 조부 김보현, 조모 리보익, 부친 김형직, 삼촌 김형권, 첫동생 김철주, 김일성의 외가 외조부 강돈육, 외삼촌 강진석 등¹³³⁾의 항일투쟁의 업적을 내세우며 그 일가가 모두 혁명적 가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의 논지는 “이러한 가정만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승해가면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 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수 있으며 영원히 변함없이 혁명에 충실할 수 있다”고¹³⁴⁾ 주장하면서 김정일의 후계자론을 제기한 것이다.

오진우의 논문¹³⁵⁾은 항일무장투쟁을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새롭게

131) 위의 글, p. 3.

13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일가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위대한 가정,” 『근로자』 1973년 4호.

133) 여기에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의 이름은 빠져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영주는 한국전쟁때의 전력에 문제가 있다는 설이 있으며, 김정일의 정적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134) 위의 글, p. 14.

135) 오진우,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령도된 영광스러운 혁명전쟁,” 『근로자』 1973년 4호.

해설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적인 노선이라는 것과 항일투쟁기간 중에 김일성이 혁명투쟁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존중하고 인민의 총복이 되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서관희의 논문¹³⁶⁾은 토지개혁 등 소위 민주개혁들을 주체사상으로 해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토지개혁 등 민주개혁을 통하여 지주, 자본가들을 청산하여 노동계급과 농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강석송의 논문¹³⁷⁾은 1958년의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국유화를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해설하였다. 인민이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했다는 내용이다.

김주영의 논문¹³⁸⁾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절박한 과제라고 보았다. 김재봉의 논문¹³⁹⁾은 공산주의 세계혁명의 의미를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혁명한다는 주체사상의 논리로 해설하였다. 이 논문은 “매개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에서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확한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투쟁방법을 세워 세계혁명의 한 고리인 자기나라 혁명을 잘하는 것이 곧 국제 노동계급 앞에 지닌 책임을 수행하는 길이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진정으로 충실한 길이다”고 보았다.

나아가 북한은 주체사상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사상으로 주장하였다. 김경련의 논문은 김일성이 주체사상

136) 서관희, “민주주의혁명 수행에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 『근로자』, 1973년 4호.

137) 강석송, “주체사상이 기치밑에 승리한 우리나라 사회주의혁명,” 『근로자』, 1973년 4호.

138) 김주영,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인민의 통일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1973년 4호.

139) 김재봉, “주체사상은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사상,” 『근로자』, 1973년 4호.

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을 전일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고 주체사상이 제기하는 실천 과제를 해결하였다.

주체사상의 근본원리가 천명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이론 실천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인류의 이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에게 단순히 풍요한 물질적 생활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사회일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꽃피워가며 존엄있는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이다.¹⁴⁰⁾

그래서 이 논문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요소를 점령해야 하는데 그 하나는 물질적 요소를 점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적 요소를 점령하는 것인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개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소를 점령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건설할 수 없다는 김일성의 말¹⁴¹⁾을 인용하면서 의식개조 운동인 인간개조사업을 제기하였다. 주체사상이 돌연 주민들의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인간개조사업의 이론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과거의 모든 역사와 정책을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의 논리로 새롭게 해석하였고 하나의 사상으로 색칠하게 된 것이며 향후의 정책과제까지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주체사상은 기존의 북한의 정책노선을 자기들의 논리대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매우 효과

140) 김경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시였다,” 『근로자』, 1973년 4호.

141)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p. 264, 김경련, 위의 글, p. 43에서 재인용.

적인 도구임이 판명된 것이다.

당시의 정치구호대로 온사회를 주체사상화 한 셈이다.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구호가 처음나온 것은 1974년 2월이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전국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 하였다고 한다.¹⁴²⁾ 같은 해에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이 구호가 나타나고 그 구호자체가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 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¹⁴³⁾

김정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의 일색화’와 더불어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도 주도하였다. 『김정일선집』에는 1973년 8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전 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 것을 역설하였고,¹⁴⁴⁾ 그해 9월 25일에는 「선전선동부 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행한 연설에서¹⁴⁵⁾ 김일성주의화 실현을 당 사상

142)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력사』, p. 474.

143) 김일성,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당조직일군 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74년 7월 31일) 『김일성저작집』, 제29권, p. 376; 김동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혁명위업,” 『근로자』, 1975년 10호, p. 12

144) 김정일, “선전선동부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17일), 『김정일선집』, 제3권.

145) 김정일, “선전선동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9월 25일), 『김정일선집』, 제3권.

사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정일선집」(1992)보다 먼저 나온 「김정일저작집」(1987)에는 1974년 2월 19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¹⁴⁶⁾ 전국 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정일 연설문에서 주장한대로 김일성주의는 김정일에 의해서 주도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김일성주의의 천명은 본질적으로 주체사상이 맑스주의를 대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엄청난 것이며, 김정일이 제기하지 않는 한 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로의 ‘격상’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제를 재생산해내기 위한 사상적 수단으로 후계자 김정일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⁴⁷⁾

김정일은 황장엽이 새롭게 개발한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를 능가하는 김일성의 새로운 사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1980년에 있었던 노동당 6차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승격되었다. 1980년판 조선로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하였다.

3. 수령중심론으로의 주체사상 변형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승격되기는 했으나, 김정일의 정치적 목

146)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 선전이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2.

147)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p. 90~92 참조.

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자신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정당성의 이념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라는 지도이념을 통하여 자신의 후계자로서의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명제가 대중성이 있기는 하지만 당과 수령의 위치가 없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입장과 논리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을 통제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이념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로 인식된 듯하다.

1973년 4월 『근로자』의 주체사상 특집이 나온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논문들이 당 이론 기관지 『근로자』에 쏟아져 나왔고 1975년 10월호 『근로자』에 당창건 30돐을 기념하는 특집이 실렸는데 역시 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된 새로운 개념들을 검토해보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변형과 수령론

당과 수령의 위치를 정립하기 위하여 북한은 무엇보다도 1972년 9월 문건에 있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당과 수령의 자리를 찾는 방식으로 논리체계를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1972년 9월의 문건에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 수령론으로 변형하기 위한 연구자들은 이를 개념적 토대로 하여 수령-당-대중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생물유기체적 비유로 발전시켰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한다는 논리로 수령중심의 개념을 만들어냈다.

본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의미는 생명론이다. 동물과 달리 인

간은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개인의 생명과 생명을 사회적으로 결합하고 그로부터 개인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보다 큰 생명력을 획득한다는 것이다.¹⁴⁸⁾ 그런데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생명체론은 북한 지도부에 의하여 수령론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생물학적 존재인 ‘사회유기체’로 변질되며 그로 인해 ‘목적의식적’으로 맺어진 사회적 관계가 ‘본능적’으로 맺어지는 생물학적 관계와 동일시 되었다.¹⁴⁹⁾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을 혈연적 관계로 치환하기도 하였다. 육체적 생명을 부모가 주듯이 사회정치적 생명은 당과 수령이 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지위를 확보해내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없이 육체적 생명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당과 수령의 영도가 없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⁵⁰⁾

북한은 당이 심장이며 원동력이며, 혁명의 선봉대, 참모부라고 주장하였는데¹⁵¹⁾ 이러한 논지는 레닌의 전위당 이론에서 원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남이 쓴 아래의 글은 당의 전위적 역할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당만이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

148) 황장엽, 『인간중심철학의 몇가지 문제』, p. 142.

149) 선우현, “평화·통일 시대의 ‘주체사상’의 의미와 역할,”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공동주관 연합심포지엄: 『21세기 동북아 한반도 정세전망과 평화 통일 문제의 새로운 인식』에 발표된 논문, 2001년 11월 2일), p. 253.

150)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근로자』 1973년 8호, p. 3.

151) 박수동, “당은 우리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 『근로자』, 1973년 10호, p. 16.

은 레닌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¹⁵²⁾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진 당만이 혁명의 매 단계마다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고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할 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수 있다. …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위대한 사상이다.¹⁵³⁾

첫 단락과 둘째 단락은 모순적인 관계이다. 앞 단락에서는 당이 주인인 것으로 주장되었지만 뒷 단락에서는 인민대중이 주인인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어느 쪽이 우선적인 주인인지가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명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주체’ 개념의 변형과 수령론

당과 대중과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김정일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이 바로 「주체사상에 대하여」¹⁵⁴⁾이다. 이 논문에서 김정일은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으로 바꾸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체’의 개념을 변경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인민

152)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p. 385.

153) 김영남,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은 현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혁명적인 전위부대이다,” 『근로자』, 1975년 10호, p. 75.

15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김일성 70회 생일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오랫동안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결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이전의 명제를 변경하고 대신에 역사의 주체로서 수령의 역할을 도입하였다.

주체사상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정립하기 위하여 김정일은 ‘지도와 대중의 결합’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개념을 통하여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체사상에서 수령중심론이 더욱 강력하게 부각된 것은 1986년에 김정일의 이름으로 나온 논문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¹⁵⁵⁾을 통해서였다. 혁명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중에서 수령이라는 것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종합·분석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입니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집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람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 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¹⁵⁶⁾

155)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당중앙위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56) 위의 글, p. 340.

이 논문에 대한 해설서가 1988년에 『혁명의 주체』라는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¹⁵⁷⁾ 이 문건은 ‘역사의 주체’와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은 인민대중이 역사를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담당자라는 것이지 사회역사적 운동의 자주적인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¹⁵⁸⁾이다. 이 책에 의하면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역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⁵⁹⁾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 주체사상 개발자가 도입한 핵심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혁명의 담당자는 혁명의 최고영도자이며 뇌수인 수령과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는 정치적 무기인 당과 혁명의 직접적 담당자인 대중으로 구성되지만 인민대중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민대중을 조직사상적으로 묶어 세우는 사업은 당과 수령의 영도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것이다.¹⁶⁰⁾

황장엽의 설명에 의하면 김정일의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명제를 계급주의와 수령절대주의에 맞게 왜곡하였다고 한다. 맑스주의는 노동계급이 가장 진보적인 계급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복한은

157)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혁명의 주체』(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

158) 위의 책, p. 6.

15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60)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혁명의 주체』, p. 7.

다음과 같이 변형했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이익은 노동계급의 당이 대표하고, 당의 이익은 수령이 대표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수령이 전사회의 이익을 대표하며 모든 사회성원들은 자기 운명을 수령에게 전적으로 의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즉, “인민대중이 주체이다, 인민대중의 기본은 노동자이다, 노동계급의 기본은 당이다, 당의 기본은 수령이다, 그러므로 수령이 주체”이라는 논리이다.¹⁶¹⁾ 전체주의는 사회의 전체성원들이 다같이 사회의 공동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이라는 특수한 개인이 사회의 주인이 된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다. 여기서 전체주의는 개인독재사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수령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¹⁶²⁾

이러한 논리는 레닌의 엘리트주의적 전위당 이론에서 따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이 완전히 새로운 사상으로서 맑스-레닌주의와 결별했지만, 수령의 절대적 역할을 주장하기 위하여 북한은 다시 레닌의 이론을 원용한 것이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스스로는 사회주의적 의식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혁명에의 의지는 전위당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레닌에 의하면 사회적 조건이 혁명의 가능성은 만들겠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조직화된 당이며 당만이 혁명적 의식의 원천이며 주도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¹⁶³⁾ 레닌은 당이 전위대, 조직자, 지도자, 이론가여야 하며 그러한 역할 없이는 노동자들이 부르조아사회의 지평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았다. 오직 당만이 사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은 사회생활

161)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 367.

162) 위의 책, p. 372.

163) V. I. Lenin, *State and Revolution*, Lenin's collected Works, vol. 5, p. 384;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pp. 397~398.

의 모든 영역에서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⁶⁴⁾ 당의 체계모니에 대한 레닌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당은 대중보다는 대중의 이익, 요구, 욕구에 대하여 더 잘 알며 인민대중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당만이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잘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노동계급과 사회전체에 대한 당의 독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기초가 되었다.¹⁶⁵⁾ 레닌의 이 이론이 북한 수령론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의 강화 배경

주체사상에서 수령중심론이 더욱 강력하게 부각된 것은 1986년에 김정일의 이름으로 나온 논문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였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되었다. 이 시점은 소련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집권한 1985년 이후 소련에서 전개된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이어 소련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혁의 소용돌이가 북한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 것으로 보인다.

1986년 김정일 문건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두드러지는데 그것은 이전의 수령 우상화를 위한 수령 충실성 강조와는 다른 논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패배주의의 운운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것은 소련에 붙어닥치는 사회주의 해체의 바람과 개혁개혁의 바람이 북한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온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패배주의는 수령과 당의 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지 못하고

164)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pp. 387-391.

165) *Ibid.*, p. 392.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는 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혁명적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대주의를 하거나 자기조국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¹⁶⁶⁾이라고 호소하였다. 소련에서 개혁개방을 하든 말든 외부의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수령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자기 부모가 반드시 다른 부모보다 낫거나 그들에게 그 어떤 덕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낳아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혁명적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오직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당-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해 나갑니다.¹⁶⁷⁾

이처럼 수령을 우상화하기 위하여 수령중심의 통치이념을 개발해서 동원해오던 북한이 소련에서 불고있는 개혁개방의 바람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을 더욱 강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166)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340.

167) 위의 글, p. 340.

4. 1982년의 체계화된 주체사상과 주체사상 총서의 내용

주체사상이 1972년 김일성의 이름으로 나온 이후 처음으로 김정일의 이름으로 나온 문건이 1982년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이다. 이 문건을 통하여 주체사상은 해석권이 공식적으로 김정일에게로 승계되었으며 주체사상이 체계적 이론으로 정리된 형태로 발표된 것이다. 이 문건의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문건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각장의 제목은 1) 주체사상의 창시, 2)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3)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4)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5)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 등이다.

제1장 ‘주체사상의 창시’에서는 김일성이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몸소 경험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켰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제2장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서는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주장이 핵심내용을 이룬다. 여기에서는 수령과 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제3장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절,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에서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역사의 주체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절,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에서는 인간의 세가지 속성중의 자주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 인간의 자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가 중요하다는 것과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절,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에서는 인

간의 속성중의 창조성을 부각하였다.

넷째절,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에서는 인간의 세가지 속성주의 의식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성을 고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사상교양의 이론적 근거로 강조되었다.

제4장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서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절,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에서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주체사상의 발전 초기에 김일성에 의하여 정식화되었다는 네가지 자주 개념들을 김정일의 1982년 문건에 포함하여 종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절,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세 개의 소절로 구성되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이라는 소제목하에서 주로 군중노선에 관련된 노동동원 방식을 정당화하는 논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에서는 남의 경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우리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운동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 소절에서는 사상개조를 선행해야 한다는 것과 정치사업을 선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제5장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에서는 주체사상이 참다운 세계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주체사상을 폭넓게 연구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주체사상 총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고 정책의 효율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연구를 진행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40주년이 되는

1985년에 10권의 주체사상 총서를 발간하였다. 총 3,25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권의 제목만 나열하고자 한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제1권), 사회역사 원리(제2권), 지도적 원칙(제3권),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이론(제4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제5권), 인간개조이론(제6권), 사회주의경제건설 이론(제7권), 사회주의문화건설 이론(제8권), 영도체계(제9권), 영도예술(제10권) 등이다.

5. 김정일 후계자 체제에서 주체사상의 기능

유일지도체제의 정당화와 종파의 경계

김정일에 의하여 새롭게 해석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유일지도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이라는 논지를 주장하면서 여타의 사상 조류를 억제하는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수령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의 정당성이 강조된 것은 유일지도체제를 강조함으로써 일체의 종파주의적 분파를 경계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의 부자체제에 대한 불만과 반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자주 사용된 구호는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이다. 김정일 후계를 반대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당과 대중간의 통일단결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의 당은 곧 김정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당중앙으로 호칭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종파주의, 지방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 사상조류와 당의 통일단결을 쪼먹는 온갖 형태의 불건전한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확고히 실현하

였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한 것은 당창건 30돐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여주는 위대한 승리입니다.¹⁶⁸⁾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우게 함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가장 공고하고도 완전한 것으로 만든다.¹⁶⁹⁾

북한의 정치적 담화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성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모순마저도 개의치 않는 문장이 많다. 이러한 측면이 실제로 오늘날 북한주민들로부터 주체사상의 이론과 실체가 너무 다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의 하나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는 대로 “수령의 사상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데 그것이 ‘주인다운’ 입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엄청난 논리적 모순이며 통치자와 피치자의 인식의 간극을 벌일 수 있는 대목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의 통일과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그이의 사상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로선과 정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관철해나갈 수 있다.¹⁷⁰⁾

168)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75년 10월 10일,” 『김일성저작집』 30권.
 169) 서철,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전투적인 당이다,” 『근로자』, 1975년 10호, p. 33.
 170) 리근모,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혁명적실천,” 『근로자』, 1973년 6호, p. 9.

우상숭배

유일지도체제 확립과 유사한 목적으로서 수령에 대한 우상숭배도 김정일이 추진한 매우 중요한 정치중의 하나이다. 김일성이 우상으로 숭배되어 절대적인 신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의 아들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더욱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근로자』가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의 한 예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피바다에 잠긴 조국과 도탄에 빠진 민족, 시련을 겪고 있는 조선혁명을 건져줄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수령을 애타게 기다리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이 절절한 념원과 피타는 갈망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한길에 나서심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였다.¹⁷¹⁾

‘주인다운 사람’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운동

김정일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구호를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개조운동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주체사상이 만들어진 이후 북한주민들은 주인답지 못하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인간개조운동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금 전반적 사회형편으로 보나 당안의 형편으로 보나 사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결함은 모든 일에서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 주인답게 일하지 않고 되는대로 일하는 현상은 특히

171) 서철,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전투적인 당이다,” p. 35.

사회주의 경제건설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¹⁷²⁾

이러한 개념에서 시작된 인간개조사업은 북한에서 사회개조사업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10권의 『주체사상 총서』 중의 하나가 『인간개조리론』¹⁷³⁾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동원 이론으로서의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동원의 이념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에의 동원, 노동에의 동원을 위하여 주체사상이 이념적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옹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온갖 낡고 반동적인 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고 선진적인 것을 창조하는 혁명투쟁에서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것은 혁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사상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것은 대중령도의 가장 힘있는 사업방법이다.¹⁷⁴⁾

172) 김일성,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당사상사업부문 일군회의에서 한 담화, 1973년 6월 13일), 『김일성저작집』 28권.

173) 사회과학출판사, 『인간개조리론: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174) 한병희,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당정책관철의 기본,” 『근로자』, 1973년 10호, p. 20.

주체사상에 나타난 지배자의 의도는 동원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위한 정치적 동원, 노동에의 동원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민주주의적 개념이다.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을 평가할 때 사상은 좋은 데 현실과 맞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기가 혁명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질 때 어떠한 일에서나 높은 책임성을 가지게 되며 자각적 열성을 내여 일하게 된다.¹⁷⁵⁾

주체사상은 곧 책임감으로 해석되고 있다. 권리보다는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선동과 동원의 구호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의 하나가 아래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경제선동방침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그 사상적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가장 창조적인 방침이다.¹⁷⁶⁾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논리

주체사상을 인간중심론에서 수령중심론으로 개조한 것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김정일의 실권 장악이후인 1974년

175) 위의 글, p. 22.

176) 김봉춘, “경제선동은 군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대중정치사업방법,” 『근로자』, 1976년 11호, p. 49.

이후 나온 「근로자」의 한 글에서 잘 드러난다. 권력의 세습이 중요한 까닭은 ‘혁명의 일관성’때문이라는 것이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역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 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 재부입니다. 이러한 혁명적 재부를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지 않고서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¹⁷⁷⁾

「혁명의 주체」라는 주체사상 교양서에서도 승계문제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였다. 북한의 혁명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이 수령직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여야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간다는 것이다. 수령의 우상화와 아들의 권력승계가 논리적으로 연관된 문제로 기획된 것임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계승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나가는 전 행정에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이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원칙들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며 따라서 혁명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 혁명의 주체를 대를 이어 강화해 나가기에서 기본은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것이다.¹⁷⁸⁾

177)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15.

178) 조선로동당출판사, 「혁명의 주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 60.

이상의 논의에서 김정일이 주체사상 개발의 주도권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주체사상을 인간중심의 개념에서 수령중심으로 바꾼 이유가 자신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VI. 80~90년대 ‘우리식사회주의’ 구호하의 주체사상

중국의 개혁개방,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사회주의권이 변혁의 격랑에 휩싸이게 되자 북한은 또다시 50년대 후르시초프시대의 수정주의의 높은 파고가 일 때와 같은 권력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권의 종주국인 중국과 소련에서 구체제를 전면 개편했던 것은 스탈린주의적 체제를 고수하려는 북한 지도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음에 틀림없다. 그들 나라처럼 개혁개방을 통하여 내부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곧 체제를 허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식한 듯하다. 북한지도부로서는 또 다시 50년대처럼 수정주의와 사대주의를 경계하고 문호를 굳게 닫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한 인식은 곧 지도부의 담화에 반영되었으며 주체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나온 주체사상은 이전에 나온 세가지 주체사상이 모두 혼합되고 조합된 형태로 나왔다. 이전에 나온 주체사상 발전의 세단계의 각 핵심 개념이었던 반사대주의, 인간중심론, 수령중심론이 모두 조합되는 형태로 나왔으나 그 기초는 반사대주의와 민족주의의 색깔을 짙게 띠었다. 반사대주의 개념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로 발전되었고,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으로 나타났다.

1. 반사대주의의 측면

우리식 사회주의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직후에 나온 김정일의 연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¹⁷⁹⁾는 체제수호를 위한 새로운 구호였다.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과 반사대주의를 의미하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절반씩 결합된 개념이지만 중점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있다.

우리 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습니다.¹⁸⁰⁾

동구가 무너지고, 중국과 소련에서 개혁개방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 지도부가 선택한 가장 강력한 정치구호는 ‘우리식 사회주의’였다. 즉 중국, 동구, 소련에서 개혁을 해도 그것은 북한과는 무관하며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간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사조에 대한 배척을 핵심적인 원리의 하나로 하는 주체사상이 이 점에서 매우 설득력있게 사용되고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이다. 우리식의 사상관점과 사

179)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선집』, 11권.

180) 위의 글.

고방식이란 다름아닌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대로 사고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과 어긋나는 그 어떤 사상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에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¹⁸¹⁾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은 중국과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이행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과거에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에서 그대로 사용하기가 불편하던 시절에 자주하던 말들이 새로운 정권위기에 새롭게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논리구조는 1955년 김일성이 처음으로 주체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하던 연설의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중국의 개혁·개방의 영향이 북한내부로 침습하는 것을 우려하고, 다른 나라가 비록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북한은 북한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주체사상 형성 첫째 단계의 차단과 단절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다.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의 첫 단계로 정확히 회귀한 셈이다. 이러한 논지의 담화는 80년대 중반부터 수없이 나왔지만 대동소이하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나라의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라고 하여 언제나 옳은 길을 걷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러한 나라의 경험이라고 하여 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큰 나라의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주성을 비워버리고 큰 나라들이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¹⁸²⁾

181)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며 일해가자,” 『조선중앙방송』, (1991. 9. 2.)

북한은 사회주의를 쪼먹는 가장 위험한 사상조류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사대주의¹⁸³⁾라고 비판한다.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개혁개방한다고 해서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며, 중국이나 소련이 하는 대로 북한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자들을 교조주의라고 비판하며, 큰 나라가 한다고 해서 북한도 따라서 해야한다고 보는 사람들을 사대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상의 순결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배격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정권을 잡고 수십년동안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당들이 붕괴되고 사회주의 제도가 무너진 과정은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여러나라에서 사회주의 집권당과 사회주의제도가 붕괴된 역사적 교훈은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사회주의 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은 사상이 변질될 때 로동계급의 당도 사회주의 제도도 변질되고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안에서 배신자들이 나오고 당이 조직 사상적으로 와해된 것도 민심이 변한 것도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상이 변질되면 강대한 경제력과 군사력도 맥을 추지 못하게되고 수십년의 발전과정을 거쳐온 사회주의제도도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사회주의를 쪼먹는 가장 위험한 사상조류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사대주의이다.¹⁸⁴⁾

북한의 지도부는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유가 자기혁명에 주인다운 태도를 갖지 못하고 주체적인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18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83)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로동신문』, 1992. 10. 10.

184) 위의 글.

있다는 사실을 다음의 인용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만일 사회주의 집권당들이 자기나라 혁명을 책임진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자기 인민의 요구와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 나갔더라면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 집권당과 사회주의 제도가 련이어 붕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¹⁸⁵⁾

북한은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와 같은 잘못된 사조들의 출처를 모두 제국주의들의 사상침투의 책동으로 돌리고 있음을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침략에 앞서 사상적 침투를 강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사회주의 나라에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을 불어 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합니다.¹⁸⁶⁾

결국은 체제를 유지하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사상통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이 변화하고 붕괴하는 원인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

185) 위의 글.

186)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 5. 27.

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당은 사상혁명을 기본적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 원리교양과 당정책 교양, 혁명전통 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 애국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우리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¹⁸⁷⁾

조선민족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은 큰나라들이 하는 대로 개혁개방을 해야한다고 동요하고 있는 ‘사대주의자’를 경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민족주의적 구호이다. 북한이 소련, 동구, 중국과는 핏줄과 언어가 다른 민족임을 주장하여 그들의 변화의 바람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1985년까지만¹⁸⁸⁾ 해도 북한은 민족주의를 “전인민적 리익을 내세우면서 자기민족내의 부르쥬아지의 리해관계를 합리화하는 사상,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합리화하는데 복무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주의를 거부해왔었다. 그러나 1985년을 기하여 북한이 갑자기 민족주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이름의 민족주의를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985년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기 시작한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85년 무렵 민족의 징표와 민족주의를 해설하는 논문이 대거 출

187) 위의 글.

188) 1985년은 민족주의를 계급론적 관점에서 해설한 「철학사전」이 간행된 해이다.

관되었고¹⁸⁹⁾ 1989년에는 206페이지에 달하는 『우리민족제일주의론』이라는 단행본이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논문들에서 민족주의에 관한 개념이 이전의 개념과 매우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민족을 구성하는 요인, 즉 ‘민족의 징표’에 관하여 북한은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모든 논문에서 교과서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민족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됩니다.”¹⁹⁰⁾ 이러한 내용은 그 이전의 계급론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개념정의와는 매우 다르다.

민족의 징표에 관한 문제는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공고한 사회적 집단으로 결합되게 하는 공통된 기초에 관한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민족의 징표에 관한 개념을 전면적으로 해부하시고 주체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으로 결합하는 공통성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라는 것을 천명하심으로써 민족에 관한 주체적인 학설의 기본내용을 더욱 뚜렷이 밝혀주시었다.¹⁹¹⁾

이처럼 민족주의의 개념에 계급론적 해석이 삭제되고 갑자기 민족의 개념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으로 정의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그

189)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10); 리규립,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 2); 최길산, “우리당이 밝힌 민족문제에 관한 리론,” 『남조선문제』 (1986. 2);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190)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10), p. 14.

191) 리규립,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p. 6.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속한 개혁과 개방에서 북한이 느낀 위기의식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폐기하고 민족주의, 그것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으로서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민족은 중국,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민족과는 핏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독자노선과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더 공고화하고자 하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내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민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들에게 충실할 수 없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발전된 나라에 대하여서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환상은 현실이 아닙니다.¹⁹²⁾

이 담화가 발표되었던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 말한 큰 나라나 선진국이란 바로 중국이나 소련을 지칭한 것임에 틀림없다. 또 여기서 말한 이들 나라의 경험이란 것도 바로 체제개혁 혹은 페레스트로이카를 가리킨 것임이 명백하다. 김정일은 그것을 북한의 현실에 선택적으로 그러면서 자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 결코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소련이나 중국의 체제개혁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충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정권수호를 위해서 사회주의를 폐기하고 민족주의를 들고 나올 만큼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의 민족에 관한 개념을 해설하는 리규린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19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11.

시작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 및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되어나간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¹⁹³⁾

이 짧은 문단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이제 자주성의 단위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떠나 민족국가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붕괴해버린 사회주의에서 연대를 느끼고 도움을 구할 수가 없게 된 마당에서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개념을 부활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란 이제 더 이상 일반 유형의 사회주의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2년에 개정된 헌법이 구헌법의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삭제하여 버리고 대신에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대체한 것은 이것과 관련하여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민족주의를 들고 나오는 목적은 자주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주성이란 소련과 중국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자는 뜻이다.

셋째, 북한이 사용하는 민족의 개념은 결코 남한민족을 포함하고 남한민족을 북한의 ‘민족문제’의 대상으로 의도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민족을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

193)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p. 6.

성으로 정의한 것은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민족과는 북한의 민족이 핏줄, 언어, 지역의 면에서 하나도 공통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의 개혁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¹⁹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으로서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한 이론화 작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인간중심론의 측면

동구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소련체제가 붕괴하기 직전에 나온 김정일의 연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는 연설은 체제위기 상황에서 체제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놓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의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습니다.¹⁹⁵⁾

194)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서 남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이 경우는 부수적인 중요성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5)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 5월 5일).

체제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의 하나는 간부들의 부정부패, 세도주의, 관료주의에 있다고 북한의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전을 하고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 지배계급의 독재와 권위주의에 불만을 갖고 있던 시민들의 불만이 1989년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강타하여 결국은 모두 붕괴하고 말았던 사건이 북한 지도부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인식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인민대중중심이라는 개념이 주체사상의 틀을 빌어서 전면에 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보람있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인민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하자면 사업체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군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군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업할 수 없으며 군중을 조직동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웠습니다.¹⁹⁶⁾

북한이 90년대 들어서 간행한 책 『한평생 인민을 위하시어』¹⁹⁷⁾는 김일성이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복무하였는지에 대한 일화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다.

지난날 지지리 억눌리고 천대받으며 살아오다가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되어 가슴펴고 뚝뚝이 살아가는 해방된 우리 인민.

196) 위의 글.

197) 근로단체출판사, 『한평생 인민을 위하시어』(근로단체출판사, 1992).

인민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여기에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있으며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조선식 사회주의의 비할바 없는 우월성과 불패성이 있다는 것을 심장으로 느낄 수 있다.¹⁹⁸⁾

이러한 주장들은 정권의 초기에는 설득력이 있지만, 정권의 쇠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수령중심론의 측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이론적으로 체계를 갖춘 개념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되면서 주체사상의 새로운 해석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¹⁹⁹⁾에서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대한 강조는 1989년 이후 동구 사회주의 사회의 붕괴, 특히, 1991년 8월 소련의 공산체제 붕괴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령-당-대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 통일체라는 것이다. 수령-당-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 뇌수

198) 위의 책, p. 28, p. 43.

199)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7.7).

인 수령이라는 것이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 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경험하는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집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증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은 여기서 당조직과 당이 영도하는 사회정치적 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사상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연결을 공고히 하고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정일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제시 이후 북한의 모든 언론과 지도부는 이러한 내용을 되풀이해서 교양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회적 함의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러한 사회관계의 새로운 개념은 북한사회의 전통적인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의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전체주의적 사회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생물학적 생명보다 사회적 생명이 선행함을 강조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가운데서도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에 입각해야 개인의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생명의 모체인 수령-당-대중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근본 요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한 것입니다.²⁰⁰⁾

두번째는 수령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를 생물학적인 유기체설의 비

200) 위의 글, p. 16.

유를 도입하여 강화하고 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것만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도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강조한다.

혁명적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대주의를 하거나 자기조국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인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와 미제를 타도하고 천리에 조선의 명예를 떨치도록 우리 인민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우리 수령이시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분도 다름 아닌 어머니 수령이십니다.²⁰¹⁾

셋째, 이러한 사회통합의 강조는 결국 중국, 동구 제국, 소련에서의 개혁 바람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동요하지 말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²⁰²⁾ 김정일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주장하는 1986년의 그 논문의 뒷부분에서 인민들로 하여금 이반을 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식들이 자기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기부모가 반드시 다른 부모들보다 낫거나 그로부터 그들로부터 어떤 덕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낳아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혁명적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

201) 위의 글, p. 17.

202) 스즈끼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동화연구소, 1991).

함없이 오직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과 생사 운명을 같이해 나갑니다. 만일 그 누가 자기나라가 뒤떨어졌다고 하여 실망하고 자기조국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먹거나 조국이 위협이 처하였을 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조국을 배반하고 자기 한 몸만을 건지려고 한다면 그 어느 나라 인민도 그러한 인간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203)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을 배신하지 말고 체제에 통합할 것을 종용하는 논리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것만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도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강조한다. 경제난 속에서도 수령을 배신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론도 김일성 우상화의 논리로 연결되었다. 앞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 핏줄과 언어 및 지역의 측면에서 조선민족이 타민족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론임을 지적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다른 민족과 다르며 ‘제일’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의 풍요로운 물질생활이나 사회보장, 민주주의가 아니라 김일성과 주체사상,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이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도 결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로 귀결된다.

203)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7. 7), p. 17.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원천력에서 근본핵을 이루는 것은 가장 위대한 수령과 지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 것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 위업에 봉사시켜 나가시는 인민대중의 가장 위대한 수령, 참다운 인민의 수령이시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지닌 존엄있고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새롭게 발전 풍부화시키시고 빛내여 나가시며 인민대중을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리상사회로 이끌어 나가시는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 인민의 스승이시다.²⁰⁴⁾

최근의 대남방송에서도 이러한 논지의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 방송된 적이 있다.

오늘 우리민족에 지니게 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긍심입니다. 자주 길로 나가는 민족의 운명은 노동자 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 개척됩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민족이 나아갈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을 가지고 되고 민족의 주체적 혁명역량을 튼튼히 구려 변혁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갈 수 있습니다. 민족의 가장 큰 행복은 위대한 수령의 영도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겨레는 탁월한 영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으로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민족의 자주권마저 빼앗기고 망국노의 쓰라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그의 영도를 받을 때에는 민중은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 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겨레는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심으로써 오랜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변혁운동의

204)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p. 138.

새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으며 자기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적인 민족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²⁰⁵⁾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중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불고 있는 개혁개방의 바람을 막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지도부의 정책지향은 수구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동원된 정치구호들이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한결같이 수구적이고 방어적이고 사상중심적인 구호들이다. 밥을 먹지 못하여 대량 이사 위기에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설득력이 있을 수 없고, 우리식 사회주의가 공감을 받을 리가 없으며, 수령의 영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식 사회주의든, 조선민족제일주의든 주체사상을 어떤 개념으로 고쳐 사용하더라도 이제 주체사상은 식량난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은 구시대의 사상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경제중심적인 새로운 통이치념이 만들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이다.

205) 「민민전방송」, 2001년 4월 28일.

VII. 2000년대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통치이념의 세대교체

1. 주체사상 퇴조의 배경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주체사상은 퇴조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동원되는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새로운 개념의 정치구호 및 이념체계가 형성되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붉은기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등이 그 대안적인 것들이며 특히 강성대국은 이제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80년대 말에 이미 주체사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같은 개념들을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으로는 사회통합과 사회동원에 미흡함이 있다는 것을 북한지도부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은 주체사상의 틀 내에서 주체사상을 변형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본 대로 김일성 사망이후 나온 새로운 정치구호들은 주체사상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체사상의 위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후퇴시키고 있는 까닭은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주체사상의 역기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체사상의 설득력을 훼손시키는 대내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김일성이 사망하고 본격 김정일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정치구호를 모색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등이 모두 김일성 사후에 나온 것임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체사상 대신 새로운 정치구호가 요구된 것은 식량난이라는 큰 위기적 상황 때문이다. 80년대 말에 사회주의권에서 불어닥친 개혁개방의 바람은 정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식량난이라는 절대적 빈곤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적 상황이다. 북한이 1995년부터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한 이후 반사대주의 개념의 주체사상이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주체사상이 대외적으로는 자력갱생, 자립노선, 또는 반사대주의를 의미하는 개념이었는데 식량을 국제사회의 구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사상의 명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 대내적으로도 주체사상은 기능부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대기근의 시대에서 이전 시대의 이념으로 사회통합을 감당하기에는 미흡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량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공장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노동의 동원 이데올로기가 무의미해졌으며, 주체사상으로는 식량위기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주는 기능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대로 주체사상은 이미 개인주의적 일탈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작용하는 등의 역기능을 내고 있었다.

2. ‘붉은기 사상’의 등장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1995년 이후 주체사상 대신에 새로운 통치이념을 만들고자 하는 흔적이 엿보인다. ‘붉은기 사상’이 그 첫 번째 시도이다. 붉은기 사상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하여 붉은 마음을 바쳐 충성하자는 사상이로서 한마디의 북한식으로 표현한다면 ‘수령 결사옹위 정신’이다. 붉은기 사상은 1995

년 8월 28일 「붉은기를 높이들자」라는 「로동신문」, 「정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1996년 신년공동사설에서부터 본격적인 통치구호로 격상되었다. 1996년의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이 「붉은기를 높이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이다. 대체로 북한의 신년사 또는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이 당시의 가장 중요한 통치이념이나 통치구호임을 고려할 때 붉은기 사상은 주체사상의 반열에 일시적으로 올랐던 통치구호이다.

붉은기 사상은 1997년과 1998년 공동사설에서도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핵심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1997년의 신년공동사설은 “올해의 총진군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것은 온 사회를 우리당의 붉은기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1998년의 신년공동사설은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붉은기 사상으로 일색화될 때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거의 주체사상이 행했던 역할을 대행하였던 셈이다. 대신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주체사상의 위상이 급격히 위축된 것을 알 수 있다.

3. 강성대국론의 등장

붉은기 사상보다 더 본격적인 통치이념으로 구상되어 제시된 것이 ‘강성대국’ 구호이다. 1998년 가을에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놓았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에서 채택한 수정 헌법이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기 바로 직전인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하여 ‘강성대국’론을

발표하였다.

‘강성대국’론이 당시의 내용과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정치에서 행한 역할로 볼 때 ‘강성대국’론은 공식적인 김정일 시대의 공식 지도이념으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강성대국론은 김정일이 국정의 최고지도자로 취임하면서 제시한 국정목표이자, 미래의 vision이며, 통치이념으로서 특징지어지는 이념체계이라는 것이 아래의 인용문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새사회 건설,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대 국가수반 앞에, 조국과 민족 앞에 다지신 애국충정의 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이다. (중략)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이 땅위에 어떤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 놓으실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적들은 상상도 못한다. ...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애국한생이 어린 이 땅위에 어떤 모습의 강성대국을 어떻게 일떠 세우시는가를.²⁰⁶⁾

북한이 강성대국론을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이유를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주체사상은 새로운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는 참신성이 부족하며, 또한 사회통합과 사회동원으로서의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량난이 심화되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궁색하게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을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으로 변형하기는 했지만 실제 효용가치는

206) 『노동신문』 정론, 1998. 8. 22.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럴 바에야 김정일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새로운 통치이념과 구호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난의 행군 시기에 희망과 비전을 주는 새로운 통치이념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간부들과 주민들의 체제불안 심리와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 강한 국가로 발전될 것이며 김정일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성취시켜 줄 것이라는 이미지로서 제시된 것이 강성대국이다.

강성대국, 듣기만 하여도 힘과 용기가 샘솟고 민족적 자존심을 가슴 후련히 폭발시켜주는 이 한마디.²⁰⁷⁾

셋째, 북한은 식량난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체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상통제와 선군정치의 지속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상강국, 군사강국, 정치강국이라는 구호를 하위구호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시었던 것처럼 사상과 군대를 틀어쥐면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근본을 틀어쥐는 것으로 된다.²⁰⁸⁾

넷째, 강성대국론이 처음으로 나온 시점이 1998년으로서 황장엽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1997년의 이듬해라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황장엽의 탈북과 남한 귀순이 주체사상의 권위를 훼손

207) 위의 글.

208) 위의 글.

시켰다고 북한지도부는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김일성과 김정일이 만든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식인과 주민들 중에는 주체사상은 황장엽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강성대국론이 통치이념으로 활용되었다는 증거의 하나는 강성대국론이 만들어진 그 이듬해 1999년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으로 올랐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99년의 신년공동사설은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올해의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오랫동안 무르익혀오신 강성대국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해가는 역사적 진군”이라고 주장하였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신년공동사설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각 년도의 신년공동사설에는 ‘주체혁명’, ‘주체위업’,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라는 단어들만 한두 번 나타날 정도이며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전혀 없다.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에서만 ‘김일성혁명사상 강좌’라는 주제로 주체사상의 내용이 상세하게 방송되고 있다.²⁰⁹⁾

특이할만한 점은 2002년의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2002년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이다. 전체 내용은 강성대국론이 주조를 이루면서도 김일성에 관련된 업적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김일성을 ‘주체사회주의’의 시조로 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사상제일주의’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지적하면서 “주체

209) 최근의 한 예를 든다면, “김일성혁명사상 강좌 154회,” 「평양방송」, 2001년 10월 3일 02:30시.

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상교육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체사상의 의미는 아직 살아있다고도 볼 수 있다.

노동신문에서도 주체사상의 위상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2001년 새 해들어서 제시한 소위 신사고론으로 알려진 글을 보도한 노동신문 사설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자」²¹⁰⁾에서 ‘주체’ 또는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강성부흥하자」라는 노동신문 정론은 전면기사로 나온 긴 글인데도 ‘주체의 사회주의 부흥강국’이라는 말 이외는 주체사상이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강성대국이라는 말은 수없이 되풀이되었다.

북한은 노동신문 2만호 발간기념일인 2001년 12월 1일에 게재한 사설의 제목이 「당의 붓대 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적극 추동하다」이다. 강성대국이 가장 중요한 통치구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성대국론이 아직 이론적 체계를 가진 이념체계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라고 규정된 것으로 볼 때 강성대국론은 김정일정권의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사회통합과 사회동원의 구호로서 활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4. 강성대국론의 기능

강성대국 구호는 식량난으로 인하여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부강한 이상향’으로서의 이미지 창출에 많이 동원되고 있으며, 강성대국 건설을 향하여 지도하고 있다는 김정일의 이미지 만들기에도 활용되고 있다.

210) 「로동신문」, 2001. 1. 9.

과거의 주체사상이 주민들의 사상의식 개조에 역점을 둔 것이라면 강성대국론은 경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한 특징이다.

우리는 어찌하여 강성부흥의 구호를 높이 휘날리게 되었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신념과 애국애민의 의지!²¹¹⁾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과 너무 괴리된 이미지이지만 원래 이데올로기는 대중들로 하여금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크다.²¹²⁾ 북한이 『로동신문』 정론의 형식으로 발표한 「강성부흥하자」라는 글에서²¹³⁾ 유토피아 꿈꾸기의 예를 잘 볼 수 있다. 글의 도입부에서 “모든 것이 흥하는 나라, 왕성한 활력에 넘쳐 번영하는 사회주의부흥강국을 건설하려는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분출시키는 혁명의 나팔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진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실의 엄혹함을 미래의 이상향으로 분식하였다.

과거에 김일성이 “이밥에 고기국”을 이상향으로 선전하였듯이 김정일은 사회주의 부흥강국, 강성대국을 새로운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성대국의 이상향을 무릉도원 같은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경치좋은 산촌마다 샘솟는 온천물은 온천물대로, 샘물은 샘물대로 모두다 <복물>이 되어 양어장들에 메기가 펄펄뛰고 팔뚝같은 칠색송어, 잉어, 송어가 식탁에 오르게 될 흐뭇한 전망 ---

211) “강성부흥하자,” 『로동신문』 정론, 2001. 6. 8.

212) 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2).

213) 『로동신문』, “강성부흥하자.”

꽃과 나무들로 가득찬 거리마다 청신한 공기가 흘러넘치고 삼점과 식당, 현대적인 편의봉사망들에서 녀성들과 아이들, 청년과 로인들의 함박꽃 같은 웃음 가득 차 넘칠 풍성한 생활의 향기가 흐뭇하게 풍겨온다.²¹⁴⁾

무릉도원을 그리는 『로동신문』의 기사는 건조한 기사문체가 아니라 시적인 운율을 실어서 노래하였다는 점도 흥미롭다.

북한은 단순히 근거도 없이 이상향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가지 정책적 조치들을 거명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장미빛 분칠을 하여 설득력을 높이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소금생산, 대흥단군의 감자농업, 메기양어장, 공장 설비 정비화, IT 산업 등이 강성대국의 성공사례로 선전되고 있다.

고난을 헤쳐온 우리 조국은 지금 새세기 부흥강국 건설자들에게 무엇을 안겨주고 있는가.

전설과도 같은 기적 - 부흥강성이다.

처절씩거리며 파도가 사뭇쳐 오는 동해기슭에 서보면 새로 생겨난 수백정보의 소금밭에서 흰눈 같은 소금이 쌓여지고 대흥단 삼천리벌에 서보면 흰쌀 같은 감자전분이 쏟아져 나온다. 공장에서 메기가 펄펄뛰고 컴퓨터조종체제로 하루에도 수만개의 닭알들이 생산되는 현실을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중략)

조선사람의 지혜와 재능을 컴퓨터에 새겨나가는 나이 어린 수재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볼수록 고난을 헤쳐온 보람으로 우리마음 한없이 설레인다. 정보시대의 높은 령마루에 치달아 오르는 과학자들의 포부 하늘에 닿았고 우리 조선을 가장 아름답고 강성하는 나라로 가꾸어 갈 건축가들의 꿈에도 나라가 돌렸다.²¹⁵⁾

214) 위의 글.

215) 위의 글.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정보산업에 접목시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감을 조장하는데 기치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2001년을 기하여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정보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정보기술산업을 북한의 주력 산업으로 특화하여 북한의 경제를 희생하고 선진국을 따라잡아 경제적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5. 강성대국론과 김정일 개인숭배 내용의 변화

정보산업 육성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 이것이 북한의 마스터플랜이며 이 마스터플랜을 창시해낸 사람이 김정일이라는 논리로 강성대국과 정보산업을 김정일의 개인숭배에 활용하고 있다.

2001년 초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투쟁 기풍, 그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북한의 신문과 언론은 그 모든 새로운 가치 지향을 김정일과 일체화하고 있으며 김정일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일을 정보기술산업의 지도자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우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러한 마스터플랜의 설계사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한 가슴에 안으시고 영웅적 진군대오에 새 세기 진군의 신호 총성을 장쾌하게 울리시었다”고 주장하였다.²¹⁶⁾ 즉, 김정일은 정보산업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김정일은 곧 ‘과학의 천재’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김정일의 이미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신해 왔는데 60~70년대에 권력승계를 준비할 때 문화예술 분야의 천재로, 70~80년

216) 『로동신문』, 2001. 1. 7.

대에 공식적 후계자로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는 주체사상의 계승·발전자로, 90년대 중반의 체제위기시에는 선군사상을 주도하는 ‘장군님’으로 선전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북한주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평가 중에는 영화에만 미친 사람, 군대나 찾아다니면서 인민들의 생활고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았다.

아직도 공식교육에서 배운 대로 김정일을 평가하고 있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김정일이 경제난의 책임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계층도 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층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고위급 상층부 간부부터 밑의 노동자, 농민까지 하나로 맥이 통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김정일 시대에 와서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으며 김정일 정권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간부들은 알면서도 현재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으니 외적으로 충성하며 노동자, 농민 하층은 고달프면서도 어쩔 수 없어 참는다고 한다.²¹⁷⁾

북한 주민들의 경제에 대한 김정일 책임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대책은 김정일이 북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지도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 김정일을 경제난의 궁지에서 구해 내는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최고의 지도자로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항일 빨치산 항전을 통하여 북한을 일제에서 구해내고 미제와 싸워 이긴 투사’ 김일성 이상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로 승격된 것이다. 다음의 구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17) 임0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 10 귀순) 증언.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최단기간 내에 발전된 과학기술 강국으로 전변시킬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과학발전에 전당,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²¹⁸⁾

정보통신산업의 특화를 통한 경제회생 전략은 단순히 경제발전의 전략으로서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북한의 간부와 일반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비전을 제시한 지도자로 이미지화 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언론이 정보기술산업에서 살길을 찾아냈다는 김정일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인류 과학 발전의 먼 앞날을 내다보는 비범한 예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놀라게 하는 깊은 과학적 식견, 한없이 폭넓고 풍부한 지식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자자동 화학으로부터 화학과 생물학, 건설공학에 이르기까지 현대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 정통하고 계신다. 첨단 과학의 정수로 되는 컴퓨터 분야의 사업에 완전히 정통하시고 우리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명안을 제시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예지의 비범성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다. 오늘 세계 인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전자와 우주기술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의 모든 것에 그 어느 정치가보다 민감한 정치가’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²¹⁹⁾

북한에서 “새로운 사고방식, 투쟁기풍”이라는 것은 곧 김정일식으로 등식화된다. 노동신문 사설은 “오늘 우리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상 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간다는 것은 명실공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식으로 살며 투

218)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2000. 7. 4.

219) 위의 글.

쟁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자면 사상과 지향뿐 아니라 투쟁기풍과 일본새까지도 장군님을 그대로 닮아야 한다”²²⁰⁾는 것이다. 김정일이 그 모든 것의 모범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북한의 언론은 몇 가지 사례도 예시하고 있다. 가령,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 시대의 맛이 나는 현대적인 메기공장, 가금기지를 비롯한 수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우시는 과정에 혁명적 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정일동지께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작전하시고 대담하게 변혁을 이룩해 나가고 계신다”고 보았다.²²¹⁾ 먼 앞날을 내다본다는 것은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력산업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이며, 통이 크게 작전한다는 것은 단번에 첨단산업을 통하여 경제를 희생하겠다는 단번도약 전략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고 있으며 북한은 조만간에 ‘단번도약’을 이룩하여 경제난을 해결하여 강성대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난의 시대에 경제문제의 지도자로 이미지화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20) 『로동신문』, 사설, 2001. 1. 9.

221) 위의 글.

VIII.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의 기능변화

앞장에서 주체사상이 위로부터는 강성대국론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 주체사상이 아래로부터 주민들에 의하여 그 의미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며 기능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주체사상의 기능변화는 그 짝이 자체의 이론에 배태해 있으며, 암시장의 성행과 정부의 자력갱생 정책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1. 주체사상의 개념에 포함된 개인주의 이론의 요소

위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네가지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네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주체사상의 이러한 다면적 특징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논리를 끄집어내어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인간중심 사상을 간판으로 내걸고 왜곡된 맑스레닌주의와 봉건전제주의 사상인 수령절대주의를 선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수령절대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있으며, 맑스주의 신봉자들에게는 왜곡된 맑스주의로 대응하고 있으며, 맑스주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간중심철학을 선전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version)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논리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주체사상은 인간중심의 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이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주체사상 교양의 교과서로 1990년 펴낸 포켓판 『주체사상학습참고자료』의 첫페이지의 첫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²²²⁾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주요 문건에서도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임을 강조한다.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 학설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이다.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²²³⁾

『주체사상학습참고자료』 책자에서 맨 처음으로 나오는 용어인 ‘주체사상’에 대한 해설에는 수령론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다. 수령론은 항상 두 번째 장에서 소개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은 바로 인간중심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귀순자들의 증언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주체사상의 기본명제는 “한마디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다. 자기운명을 개척해 가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222) 금성청년출판사, 『주체사상학습참고자료: 용어해설』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0), p. 12.

223)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의 주민들이 암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말은 별로 관심이 없으며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은 보편적인 인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주체사상은 그 이론의 본질에 있어서 인본주의이며, 개인주의적 요소를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자력갱생과 개인주의 생활양식으로의 변화

북한은 “강행군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생계를 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과거 국가차원의 경제발전 정책으로서의 자력갱생을 개인 생계차원의 자력갱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배급제도 붕괴에 따른 귀결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실감나게 체험되고 있는 것이다.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아사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며 오히려 이기주의가 발호하는 체험을 하고부터는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명제는 북한당국이 경제난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정책과 맞물려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에 있어서 집단주의가 퇴조하고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 분석한 바 있다.²²⁴⁾ 독

224) 서재진, 『또하나의 북한사회』 (나남출판, 1995), 제9장 “사회생활의 변화: 집단주의적 원칙 대 사적 자율화” 참조.

고순의 연구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과 남한 사람을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의 정도를 비교하여 북한주민들의 가치지향을 간접적으로 추론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집단주의의 속성은 탈북자들과 남한 사람간에 비슷하게 나타나며, 개인주의에서도 비슷하나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로 나누어 볼 경우, 남한주민은 수평적 개인주의에 가깝고, 탈북자들은 수직적 개인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란 권력과 서열에 대한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직적 개인주의는 보다 경쟁적인 성향의 개인주의를 의미한다.²²⁵⁾

3. 주체사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주체사상의 역기능

주체사상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요소와 북한 당국의 개인차원의 자력갱생의 강조 등이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원래 주민들이 배운 주체사상을 탈북자 몇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주체사상의 역사적 뿌리는 항일투쟁의 싸움마당에서 태어났다. 1930년 7월 2일 중국 카론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라고 주장한데서 주체사상의 시원이 열렸다. 주체사상은 일본놈 내모는 것도 조선인민의 힘으로 하고 전후 북구도 조선인민의 힘으로 한다는 사상인데 70년 이후부터 주체사상을 확대 강화하였다.²²⁶⁾ 미국 및 남한과 정면대결하는 상황에서 이 사상으로 뭉쳐야 이길 수 있으며 모든 사회적 환경에서 주체

225)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pp. 130~138.

226) 이것은 1972년 9월 황장엽의 인간중심의 주체사상 개발 이후 주체사상의 발전과 활용이 적극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상이 필요했다. 주체사상의 본질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 모든 것을 개척하는 것도 자기자신이라는 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간다는 사상이다. 한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라의 운명을 설명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에 공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인식은 이처럼 북한 지도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매우 선택적으로 인식한 측면이 강하다.

주체사상이 주민들의 공감을 상실하게 된 배경은 다음의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지도부는 주체사상을 통하여 주민들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성을 높여서 정치와 경제에 동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했지만, 주민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말을 민주주의적 개념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당국의 의도와 주민들의 인식은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상적으로는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좋은 사상을 행동으로 연결시켜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주체사상의 기본명제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노동당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며 노동당과 수령이 운명의 주인이라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²²⁷⁾

사람위주의 사상이며 사람을 위해 복무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람이 굶어죽고, 총에 맞아죽고, 잡아 가두기고 하고 하는 등 폭력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등 현실과 안맞다고 생각한다고 한다.²²⁸⁾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 자기자신이 자기운명의 주인이라고 설명

227) 서철0 (철도국 신호원, 1998. 11. 30 탈북) 증언.

228) 차민0 (병원초급당비서, 2000년 귀순) 증언.

되고 있지만 현실은 인민 모두를 엮어매어 놓고 있으며 체제에 희생 되는 것이 인민대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인민대중에 의거한다고 해놓고 정권은 인민대중을 멀리하고 억압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래서 망했다는 인식도 있다. 너희가 주인이니까 너희가 하 라고 해놓고 집행은 자기네 간부들이 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일 위에서 다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상과 현실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북한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²²⁹⁾

북한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일반적인 호불호의 평가는 “주체사상 하면 짜증이 난다”는 식이다. 눈뜨면 주체사상을 교육하니 지겹고 짜증난다는 것이다.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원리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치현실과는 정반대라고 본다. 자주적 인간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인간은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주적으로 생각해도 표현은 못하며, 표현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한다.²³⁰⁾

현재는 북한의 사상교양 시간에 강연자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 무릉도원의 나라”라고 말하면 청중들이 ‘와!’ 하고 웃는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정치학습교원의 말끝마다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것도 자기자신”이라는 구절을 배우며, 일반사람들은 주체사상하면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만 생각난다고 한다. 수령-당-대중의 3위일체는 안먹히며, 수령관 따로, 주체사상 따로 논다고 한다.²³¹⁾ 주체사상의 복합적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주체사상은 이제 북한주민들에 의하여 개인주의를 정당화하

229) 김홍0 (함북운성 기계공장 자재인수원, 36세, 1999년 귀순) 증언.

230) 이국0 (35세, 운성군 양정사업소 검열지도원) 증언.

231) 이진0 (군훈연구소 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5. 9 탈북) 증언.

는 이론으로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민들은 평생 배워준 것이 주체사상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써 먹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를 인식한 북한주민들은 이제 개인차원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현실에서 개인주의적 이론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체사상은 의식성, 창발성, 자주성을 강조하는 사상인데 이러한 사상은 시장에서 생필품을 획득하고 정부에서는 개인의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주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식성, 창발성, 자주성을 발휘해서 각자 생존하는 방식을 터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평생 배운 주체사상을 주민들이 접수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별어서 내가 먹고 산다는 사상, 오직 자기밖에 믿을 수 없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회자되고 있는 유머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왜 식량배급이 안나오지?
 나라에서 갖다 주기 바라나?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데 나라에서 갖다주기 바라나?

요즘 어떻게 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 아니냐?
 주체사상 있지 않느냐?
 나라에서 갖다주기 바라나? 232)

232) 이국0 (운성기계수리공장, 강제노동단련대 대열지도원, 37세, 2000년 탈북) 증언.

이처럼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의 기본 명제를 암시장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다.

셋째,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은 이제 체제로 부터의 이탈의 이론적 근거로까지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명제는 북한주민들에게 실제 의미 그대로 이해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호송되는 도중 탈출에 성공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한 탈북자는 주체사상 때문에 자신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도문에서 기차에 실려 평양으로 호송되는 도중 갑자기 주체사상의 “나자신의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는 구절이 생각났으며, “내가 나의 의지에 반하여 붙잡혀 갈 필요가 있는가? 혹시 도망칠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하고는 사력을 다하여 도망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고 한다.²³³⁾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이 명제가 역기능을 낳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체사상 교양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은 강조되지 않고 다른 내용이 주로 거론된다고 한다. 주체사상의 기본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내용 밖에 없으며, 살 붙이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²³⁴⁾ 가령, 주체사상의 창시자가 김일성이며, 주체사상이 세계에서 어떻게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체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향은 어떠한지 등을 가르친다고 한다.

주체사상의 내용에 대한 교양은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실질적인 사상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성에

233) 이진0 (군훈연구소 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5.9 탈북) 증언.

234) 이국0 (운성기계수리공장, 강제노동단련대 대열지도원, 37세, 2000 탈북) 증언.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한다. 인간이 사회적 인간인 만큼 수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인민대중을 옳게 이끌고 나아가는 수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나아가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버리면 죽음ियो 지키면 살 수 있다, 절대로 사회주의를 버리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주로 강연한다고 한다.²³⁵⁾

4. 주체사상의 개념에 포함된 혁명이론적 요소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주체사상이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경향에 의하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명제는 향후 북한체제의 사회통제 능력에 따라서 혁명의 이론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주체사상 학습참고자료』는 주체사상이 위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가장 숭고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만 아니라 힘든 노동과 낡은 사상과 문화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혁명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내세운다”고 주장했다. 주체사상이 인간해방의 사상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위대한 두 번째 이유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방도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그 방도란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수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인간을 해방하고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혀준다고 주장했다.²³⁶⁾ 여기서 때려 부셔야 할 ‘낡은 사회제도’란 물론 일본제국주

235) 위의 증언.

236) 금성청년출판사, 『주체사상학습참고자료』, pp. 17~18.

의와 자본주의적 제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체사상은 하나의 혁명사상이다. 지금까지는 주체사상이 이전 체제의 잔재를 낳은 체제라고 규정했지만,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기존의 체제를 낳은 잔재로 규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북한의 지도부가 이러한 주체사상에 대한 명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현재의 북한체제가 과거의 일제식민지에서 북한인민을 해방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젊은 세대에게는 너무 먼 과거의 이야기이고 현재에는 현재의 체제가 북한주민을 착취하고 압박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주체사상은 불멸의 빛나는 사상이며 착취와 압박, 부정의를 반대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지도적 사상”²³⁷⁾이라는 이 명제는 혁명사상에 가까운 명제이다.

남한에서 주체사상이 일부 대학생들의 사회운동의 이념으로 활용된 적이 있듯이 북한에서도 향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체사상이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남한의 주사파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주체사상이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사례: 남한의 주사파 학생운동

주체사상이 남한에서 학생운동의 변혁이론으로 기능했던 것은 북한 당국의 시각에서 보면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지배이데올로기가 피지배집단의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이 변혁운동의 이론으로 사용된 배경은 주사파 학생운동에 주체사상 이론을 공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

237) 김영남,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은 현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혁명적인 전위부대이다,” 『근로자』, 1975년 10호, p. 78.

환의 증언에 의하여 잘 드러났다.²³⁸⁾ 김영환에 의하면 1985년 하반기부터 학생운동이 반미운동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의 정서에 부합하여 순식간에 학생운동의 대세로 되었다고 한다. 이 반미학생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확립할 필요를 느껴서 이론적 자원을 찾던 중 주체사상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체사상은 민족주체 의식과 인본주의를 강조하던 한국의 지적 풍토에서 학생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내용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대남방송인 평양방송과 민민전에서 주체사상강좌 등 주체사상 관련 내용들이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²³⁹⁾ 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남한 학생운동의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중의 일부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내용과 초기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인 자주의 개념이 주요 주제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김영환은 1986년부터 대학가에 자신의 저서 『강철서신』을 배포하여 운동권 주류 NL계열중 상당수를 주사파로 변신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이 북한을 반대하는 쪽으로 태도변화를 하게 된 배경은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이론과 북한의 실제 현실간의 차이를 확인한데 있다고 한다. 김영환과 그의 동료 조유식은 1991년 밀입북하여 김일성을 면담하고 북한의 실태를 직접 확인한 뒤부터 점차 주체사상과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238) 김당, “김영환은 김일성 만난 후 전향을 결심하였다,” 『신동아』 1999년 10월호; 김당, “김일성도 주체사상 모르더라,” 『신동아』 1999년 11월호; 김영환, “강철서신 김영환의 반성문” <http://my.netian.com/~csi1001/unity.html>.

239) “『유시민의 세상읽기』, 주사파를 생각한다,” <http://my.dreamwiz.com/2000baby/you/sesang/0913.htm>.

인민의 자주성을 외치는 주체사상을 내세우면서도 인민의 자주성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체류 중 북한의 당간부들이 하급관리나 일반주민들에게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주체사상은 그들에게 단지 지배에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체사상의 대부로 알려진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90년대에 쏟아져 들어온 탈북자들의 증언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의 증언들이 대체로 진실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강철환과 안혁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체험기 『대왕의 제전: 그리운 어머니』²⁴⁰⁾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양상이다. 주체사상의 이론은 이골이 나게 교육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남한대학생이 북한에서 느끼는 것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북한에서 사는 주민들도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느끼고 있으며 점차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 지배이데올로기가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사례: 동독 붕괴 당시의 시민운동

지배이데올로기가 자국 내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예는 동독의 사례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독에서도 맑스-레닌주의의 원리에 따라 인민의 개념이 중시되었다. 동독에서 사용된 중요한 정치구호의 하나는 ‘인민이 주인이다’, ‘모든 것은 국민복지를 위해서!’ 등이다. 동독의 시민들이 1989년에 체제에 저항하여 쫓겨났을 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 “우리가 인민이다”, 또는 “We Are the

240)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그리운 어머니』 (서울: 향실, 1993).

People”이다.²⁴¹⁾ 이 외침의 의미는 인민이 주인이라고 당국이 수없이 주장했듯이 우리가 인민이니 우리가 이제 진짜 주인노릇을 하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주인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주인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혁명적 구호가 된 것이다.

지배자들이 허위의식으로 사용하던 지배이데올로기를 피지배자들이 그 이념을 현실로 실현하자고 집단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지배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혁명적 구호로 되는 것이다. 동독 시민들에게 “우리가 인민이다”라는 구호는 그동안의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뇌관역할을 하였으며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결국 동독체제를 전복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동독의 시민들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We Are the Same Nation”이라고 외치면서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장벽을 넘었을 때는 그 구호는 동서독이 통일 되는 혁명적 구호가 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가 지배자에 의하여 사용되었을 때는 허위의식이었지만, 북한의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혁명적 구호로 전변되는 것이다.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주인노릇을 해왔던 지도부를 전복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주민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를 언제, 집단적으로 외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 그에 관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241) 마를리스 멩게 지음, 최상안 옮김, 『동독의 통일 혁명: 우리없이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을유문화사, 1990), p. 215.

IX.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대한 분석은 사상체계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것이 형성되어진 대내외적 배경과 그것이 행한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권력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도전을 분쇄하는 하나의 이념적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그 지배이념은 다시 정권안정기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하도록 수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또한 김정일에게 권력세습이 계획되었을 때 그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주체사상의 발전이 탄력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게 된 것과 김정일 자신이 권력승계를 위한 도구로 주체사상을 활용한 것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통치이념과 권력간의 상관관계를 잘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가 이전의 연구와 다르게 새롭게 발견한 사실의 하나는 1950년대 김일성이 주체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이후 주체사상의 내용이 황장엽과 김정일의 손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이 처음 주체사상을 만들었을 때의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은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외적 자주노선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1972년에 황장엽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명제이다. 김일성판 주체사상이 反사대주의 또는 self-reliance의 개념에 가깝다면, 황장엽판의 주체사상의 내용은 주인 또는 subjecthood, lord의 개념에 가깝다. 전혀 다른 개념이 ‘주체’라는 하나의 단어에 담겨져 있는 셈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주체사상을 언급할 때는 북한의 주민들의 주인다운 태도를 갖도록 인간개조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인민대중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영도하는 수령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지만, 북한주민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민주주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당국의 의도와 주민들의 인식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결국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만병통치약식으로 어디에서나 활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효과는 내기가 어려운 개념으로 되고 말았다. 북한은 수령우상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지만 주체사상이라는 개념 속에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에서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의 개념으로 궁색하게 변형시켜 논리적 연결고리를 만들기는 하였지만 인간이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명제와 수령이 주체라는 억지논리 사이는 여전히 갈등과 모순적 관계에 있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최대의 모순이자 한계였다.

결국 주체사상은 지도부에서 의도하는 방향에서 이탈하여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 앞의 분석에서 밝혀졌다. 주체사상이 역기능을 내고 있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현실과 사상이 너무 다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인민대중이나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주체사상이 사람위주의 사상이며 사람을 위해 복무한다고 하면서 굶어죽는 인간을 구제하지 못하는 주체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변한다고 한다.

둘째, 경제난 속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 개개인에게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자기생계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도록 한 방침이 주체사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명제가 배급제도가 마비되어 암시장에서 자기 스스로 생필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주체사상이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혁명의 주인임을 자처하고 나서게 하는 이론적 근거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배이데올로기가 저항이데올로기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남한에서 주사와 학생운동의 저항운동의 이념으로 사용되었듯이 북한에서도 같은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 동독의 주민들이 “우리가 인민이다”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주인노릇을 한 공산당 간부들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주인의 권리를 내놓으라고 시위를 벌였듯이 북한주민들도 “우리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고 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북한체제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체제에 대하여 체제를 이탈해서라도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의식을 깨우치고 있기 때문에 체제이탈의 이론적 근거로도 활용되고 셈이다.

셋째,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서 북한이 1995년부터 공식적으로 해외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사상이 존재이유를 훼손당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주체사상이 self reliance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주체사상은 명분을 크게 상실하였다.

넷째, 결국 북한은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취임하는 1998년 9월을 기하여 새로운 통치이념인 강성대국론을 등장시켰다. 북한 정치에서 이제 강성대국론이 그 활용도에 있어서 주체사상을 능가하면서 주체사상을 대체하고 있다.

흔히들 주체사상을 북한체제와 동일시할 정도로 주체사상을 북한체제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해온 했었는데, 이제 주체사상은 강성대국론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다. 주체사상은 영생불멸할 것이라는 북한의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주체사상을 먼저 퇴조시키고 있는 셈이다. 주체사상은 정권초기에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반사대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수구적이고 방어적인 속성을 지녔으며 90년대에 주체사상을 새롭게 변형하여 제시한 개념인 조선민족제일주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론도 모두 아사상태 속에서도 현상유지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현실과 모순적인 개념들이다.

제Ⅱ장의 지배이데올로기론이 지적한 대로 어떤 지배이데올로기든 피지배자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지지를 받는 한에서만 효율성이 있다.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도 생성의 초기단계부터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현재는 쇠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영생불멸할 것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주장은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지도부가 주체사상은 새로운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는 참신성이 부족하며, 또한 사회통합과 사회동원으로서의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량난이 심화되어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절망하고 실의에 빠진 인민대중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새로운

통치이념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간부들과 주민들의 체제 불안 심리와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 강한 국가로 발전될 것이며 김정일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성취시켜 줄 것이라는 이미지로서 제시된 것이 강성대국이다.

둘째, 북한지도부에게는 체제위기시에 김정일 중심으로 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체사상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구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일상화되어 통치이념으로서의 효과가 소진되었다고 본 듯하다. 또한 궁색하게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을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으로 변형하기는 했지만 실제 효용가치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럴 바에야 김정일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새로운 통치이념과 구호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정보산업론과 결합하여 김정일이 정보산업의 선구자라는 새로운 이미지 만들기에 활용하고 있다. 김정일은 60~70년대에 권력승계를 준비할 때 문화예술 분야의 천재로, 70~80년대에 공식적 후계자로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는 주체사상의 계승·발전자로, 90년대 중반의 체제위기시에는 선군사상을 주도하는 ‘장군님’으로 선전되었다. 이제 김정일은 정보산업을 통한 강성대국의 설계자로 부각되고 있다.

넷째, 강성대국론이 처음으로 나온 시점이 1998년으로서 황장엽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이듬해라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한지도부는 황장엽의 남한 귀순이 주체사상의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김일성과 김정일이 만든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식인과 주민들의 많은 수가 주체사상은 황장엽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가지 이유들을 요약한다면 이제 수구적이고 방어적인 주

체사상을 보다 경제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성대국론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본격적인 김정일의 시대로 바뀌자 이러한 변화가 왔다는 것은 김일성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주체사상도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주의 체제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가까운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개념이 지배이념으로 수용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았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지배이념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있던 소련으로부터 사상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차별화할 수 있는 대안적 통치이념이었기 때문임이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이제 새로운 시대 환경에서 그 실용성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통치이념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가 주체사상의 종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사상교양을 강화하고자 할 때 주체사상이 동원되기는 하겠지만 강성대국론에 그 주류 통치이념의 자리는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역할은 오히려 북한주민들에 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은 최근에 주민들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으며 북한지도부의 의도와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국문

- 고병철. “한국전쟁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 건설』.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2.
- 김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그리운 어머니』. 서울: 향실, 1993.
- 김당. “김영환은 김일성 만난 후 전향을 결심하였다.” 『신동아』, 1999년 10월호.
- _____. “김일성도 주체사상 모르더라.” 『신동아』, 1999년 11월호.
-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통일연구원, 2000.
- 데이비스 Howard Davis and Richard Scase.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울: 느티나무, 1990.
-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 마를리스 멩게 지음. 최상안 옮김. 『동독의 통일 혁명: 우리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을유문화사, 1990.
- 모리 카즈코. 『중국과 소련』. 서울: 사민서각, 1989.
- 박찬식 편역. 『등소평』. 서울: 두레, 1979.
-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0.
-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서재진. 『또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나남출판, 1995.

- 서재진.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통일연구원, 1996.
- 스즈끼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동화연구소, 1991.
- 신일철. 『북한주체철학연구』. 나남, 1993.
- 우현. “평화·통일 시대의 ‘주체사상’의 의미와 역할.”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공동주관 연합심포지엄: 『21세기 동북아 한반도 정세전망과 평화 통일 문제의 새로운 인식』에 발표된 논문, 2001년 11월 2일.
- 유시민. “[유시민의 세상읽기], 주사파를 생각한다.”
<http://my.dreamwiz.com/2000baby/you/sesang/0913.htm>.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_____.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서울: 들녘, 2001.
- 伊東孝之. “동구혁명과 비스탈린화.” 동구사연구회 편. 좋은책 편집부 역 『격동의 동구현대사』. 서울: 좋은책, 1990.
-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학위논문, 2001.
- 정우곤. “한국전쟁과 북한의 대중소관계.”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2.
- 한호석. “황장엽사건에 대한 분석적 이해.” www.onekorea.org.
- _____. “황장엽류의 주체철학 해석에 대한 북(조선) 내부비판.”
<http://www.onekorea.org>.
- 한홍구. 『알기쉬운 북한 현대사』. 김남식 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서울: 현장문학사, 1989.

- 홉스봄, 에릭. 『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 까치, 1994.
-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 _____.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 _____. 『인간중심철학의 몇가지 문제』. 서울: 시대정신, 2000.
- _____. 『인생관: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 I』. 서울: 시대정신, 2001.
- _____. 『사회역사관: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 II』. 서울: 시대정신, 2001.
- _____. 『세계관: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 III』. 서울: 시대정신, 2001.

2. 영문

- Abercrombie, Nicholas. Stephen Hill, and Bryan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0.
- Abercrombie, Nicholas and Bryan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in Anthony Giddens and David Held, eds. *Classes, Power and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Bardach, Janusz and Kathleen Gleeson. *Man is Wolf to Ma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 Cheal, David. "Hegemony, Ideology and Contradictory Consciousness."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20 (1979).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Dewey, John. *Psychology*. New York: Harper Brothers, 1886.
- _____. *Human Nature and Human Conduct*. New York: Henry Holt, 1922.
- Herbert, George. *Mead, Mind, Self &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 Hough, Jerry F.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Khrushchev, Nikita. *Khrushchev Remembers*. with an Introduction, Commentary and Notes by Edward Crankshaw. translated and Edited by Strobe Talbott. Boston: Lottle Brown, 1970.
- Kolakowski, Leszek. *Main Currents of Marxism 2- the Golden Age*.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Larrain, Jorge. *The Concept of Ideology*. Athens: University of George Press, 1979.
- Lenin, I. *State and Revolution*. Lenin's collected Works. vol. 5.
- Mannheim, Karl.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2.

- Marx and Engels, *The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8.
- Mellos, Koula. “Developments in Advanced Capitalist Ideology.”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1. no. 4 (1978)
- Miliband, Ralph. *Class Power and State Power*. New York: Verso, 1983.
- Nielsen, Kai. “Marxism, Ideology, and Moral Philosophy.”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 6. no. 1 (1980)
- Thruston, Robert. *Life and Terror in Stalin's Russia, 1934~1941*.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6.
- Viola, Lynne. *Peasant Rebels under Stalin: Collectivization and the Culture of Peasant Resist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Wallerstein, Immanuel. *The Politics of the World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3. 북한원전

- 강석승. “주체사상이 기치밑에 승리한 우리나라 사회주의혁명.” 『근로자』, 1973년 4호.
-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 근로단체출판사. 『한평생 인민을 위하시어』.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2.
- 근로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력사교양.” 『근로자』, 1964년 11호.
- _____. “모든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자.”

- 「근로자」, 1971년 6호.
- _____. “새 사회주의헌법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선진적인 헌법.” 「근로자」, 1973년 1호.
- _____.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 「근로자」, 1973년 4호.
- _____.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일가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위대한 가장.” 「근로자」, 1973년 4호.
- _____.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근로자」, 1973년 8호.
- _____.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자.” 「근로자」, 1973년 9호.
- _____.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자.” 「근로자」, 1973년 9호.
- 금성청년출판사. 「주체사상학습참고자료: 용어해설」.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0.
- 김경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시였다.” 「근로자」, 1973년 4호.
- 김동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혁명위업.” 「근로자」, 1975년 10호.
- 김봉춘. “경제선동은 균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대중정치사업방법.” 「근로자」, 1976년 11호.
- 김영남,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은 현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혁명적인 전위부대이다.” 「근로자」, 1975년 10호
- 김영환, “강철서신 김영환의 반성문” <http://my.netian.com>

~/csi1001/unity.html.

- 김일성. “사회주의혁명의 현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5년 4월 4일). 『김일성저작집 9』.
- _____.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근로자』, 1955. 4.
- _____.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 할데 대하여(1955년 12월).”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체코공화국 정부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김일성수상의 연설(1957년 4월 1일).” 『로동신문』, 1957. 4. 2.
- _____.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1957년 4월 4일).”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 _____.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40주년 경축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회에 참가한 우리당 및 정부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1957년 12월 5일).”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 _____. “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2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0년 7월 6일). 『김일성저작집 25』.
- _____.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1월 10일). 『김일성저작집 27』.
- _____.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 마이니찌 신봉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9월 17일). 『김일성저작집 27』.
- _____.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당 사상사업부문 일군회의에서 한 담화, 1973년 6월 13일). 『김일성저작집 28』.
- _____.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당조직일군 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74년 7월 31일). 『김일성저작집 29』.
- _____.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1975년 10월 10일) 『김일성저작집』 30권.
- _____. “스탈린 대원수에게 드리는 편지(1946년 8월 28일).” 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1집』. 서울: 통일원, 1980.
- _____.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일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기본핵.” 『철학연구』, 1991. 2.
- 김재봉. “주체사상은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사상.” 『근로자』, 1973년 4호.
- 김정일. “청년들을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무장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 사로청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1일). 『김정일선집 2』.
- _____. “선전선동부의 기본임무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17일). 『김정일선집 3』.
- _____. “선전선동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9월 25일). 『김정일선집 3』.
- _____.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전국 선전이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년 2월 19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70회 생일 기념 전국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당 중앙 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근로자』, 1987년 7호.
- _____.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1년 5월 5일). 『김정일선집 11』.
- _____.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 5. 27.
- _____.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로동신문』, 1992. 10. 10.
- _____.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92.

10. 10.

김주영.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인민의 통일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1973년 4호.

남조선문제.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 10.

『로동신문』.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1963. 10. 28.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1965. 4. 17.

_____. “자주성을 옹호하자.” 1966. 8. 12.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통신사 성명.” 1967. 1.

_____. 정론. 1998. 8. 22.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 2.

리근모.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혁명적 실천.” 『근로자』, 1973년 6호.

리성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근로자』, 1963년 6호.

박수동. “당은 우리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 『근로자』, 1973년 10호.

박인근.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 『근로자』, 1989년 1호.

사회과학출판사. 『인간개조리론: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관희. “민주주의혁명 수행에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 『근로자』, 1973년 4호.

서철.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전투적인 당이다.” 『근로자』, 1975년 10호.

신진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 『근로자』, 1965년 10호.

- 안함광. “문학예술에서의 주체문제.” 『근로자』, 1965년 12월 24호.
- 오진우.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령도된 영광스러운 혁명전쟁.” 『근로자』, 1973년 4호.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략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혁명의주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_____.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_____.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한병희.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당정책관철의 기본.” 『근로자』, 1973년 10호.
- 최길산. “우리당이 밝힌 민족문제에 관한 리론.” 『남조선문제』, 1986. 2.
- _____.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 10.